

제367회국회
(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3월18일(월)

장 소 외교통일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 건
2. 소위원장 개선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4.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5.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7. 업무보고
 - 가. 외교부
 - 나. 통일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라. 한국국제협력단
 - 마. 한국국제교류재단
 - 바. 재외동포재단
 - 사. 한·아프리카재단
 - 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8. 상설소위원회 위원장 개선의 건

상정된 안건

1. 간사선임의 건 3
 - o 간사(김재경) 인사 3
2. 소위원장 개선의 건 3
3.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4.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5.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4
 -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4
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4
7. 업무보고 6
 - 가. 외교부
 - 나. 통일부
 -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라. 한국국제협력단
 마. 한국국제교류재단
 바. 재외동포재단
 사. 한·아프리카재단
 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27

8. 상설소위원회 위원장 개선의 건 27

7. 업무보고(계속) 28

가. 외교부
 나. 통일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라. 한국국제협력단
 마. 한국국제교류재단
 바. 재외동포재단
 사. 한·아프리카재단
 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윤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선임된 윤상현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박수)

앉아서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 정착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주변국·우방국과의 교류 확대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국가 외교적 과제에 부응하고 재외국민과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뿐만이 아니라 지원정책의 마련을 통하여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한반도 주변의 정세는 우리

나라의 국익과 의지에 관계없이 진행된다는 우려와 더불어 남북관계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엄중한 대외환경 변화의 시기에 본 위원은 외교통일위원장으로 먼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태도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남북간의 교류 확대에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우방국인 미국 일본 등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및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변화되고 국익 중심의 외교 지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과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교정책에 국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과 허심탄회하게 상의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성실하게 경청하여 우리 위원회가 여러 중진 위원님들의 지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교부장관님, 통일부장관님, 민주평통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관계관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셔서 각 기관의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정부 관계관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교섭단체 간사 선임과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계획서 등을 채택한 후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의 업무 현황과 최근 외교·통일 분야 현안에 대한 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입법조사관입니다.

강준희 입법조사관입니다.

김병진 행정실장입니다.

(직원 인사)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안전심사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4시10분)

○위원장 윤상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자유한국당 간사 위원이 사임함에 따라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새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선임은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재경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왔습니다.

그러면 김재경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김재경) 인사

○위원장 윤상현 그러면 새로 간사로 선임되신 김재경 위원님으로부터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요즘 우리 위원회의 현안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럽기는 한데 제가 그간에 쪽 지켜보니까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께서

이런 문제들을 원만하게 잘 풀어 가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화롭게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감사합니다.

2. 소위원장 개선의 건

(14시12분)

○위원장 윤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정양석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새로 김재경 위원님을 소위원장에 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재경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경 위원님이 소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윤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국회의장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3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인사청문요청안의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해서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사청문회는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되 진행 순서는 장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후 후보자의 최종발언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사청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문회 실시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14시14분)

○위원장 윤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은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 시까지 요구된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총 591건입니다. 추후 추가적인 자료요구서가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까지 요청된 자료제출 요구서는 오늘 의결을 통해 우선적으로 제출을 요구하기로 하고 이후 추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위원회 의결에 같음하여 위원장이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김연철)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위원장 윤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까지 증인 등의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요구가 없습니다. 추후 증인 등의 출석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양당 간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안건의 명칭이 너무 길어 약칭으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으로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16분)

○위원장 윤상현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후 숙려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상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위원장 윤상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

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제9차 협정이 작년 말 만료됨을 감안해서 작년 3월부터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여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금년 2월 합의하였습니다.

협 의 과정에서 미 측은 동맹국의 방위분담에 대한 최상부의 전례 없는 높은 관심을 배경으로 총액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할 필요성과 우리의 재정적 부담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하였습니다.

협정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한미 양국은 2019년도 분담 총액을 1조 389억 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국방 예산 증가율을 반영하여 2018년도 분담금 9602억 원 대비 8.2% 증가한 수준입니다.

둘째, 협정 유효기간은 미 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년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다만 상황 여하에 따라 양국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두었습니다.

셋째, 분담 항목은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 신설을 수용하지 않고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이라는 기존 항목을 유지하여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분담협정의 기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정부는 그간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분담금 집행 과정에서 식별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9차 협정보다 진일보한 제도 개선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제도개선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사건설 분야입니다.

9차 협정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예외적 현금 지원 조항을 전면 삭제하였고 현금 지원되는 설계·감리비의 경우에도 배정된 금액을 다 쓰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 설계·감리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미집행 현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선정 과정에서 우리 측이 사업목록 조정과 추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선정 및 계획 단계부터 우리 측의 참여도를 높이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수지원 분야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연도 말 미집행 지원분에 대해 그간 사실상 자동 이월을 허용해 온 것이 우리 국가재정법과 합치되지 않는다는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금번 협정에는 이월 허용 요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 업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 기업만의 군수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한국 업체의 요건 유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건비 분야입니다.

우선 9차 협정 당시 인건비 지원 비율을 총 인건비 대비 75% 이하로 제한했던 상한선을 철폐하고 75% 이상 지원 노력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서 정부의 인건비 분담 비율 확대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9차 협정에서 교환각서에 명시되었던 한국인 근로자 복지증진 노력 의무 조항을 협정 본문으로 격상하여 명문화함으로써 근로자 권익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 양국은 제도개선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방위비분담협정 제도 전반의 중장기적인 개선 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장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정부는 과거 특별협정, 교환각서 2개 그리고 이행약정으로 구성되었던 관련 문서를 금번에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특별협정 합의 후 별도로 국방 당국 간 이행약정을 체결하여 사후 보고하였던 데 비해 금번에는 특별협정 협의 과정에서 이행 약정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안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렇게 합의한 두 문서를 국회에 함께 제출하여서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사안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철저하게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권기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는 1조 389억 원으로 규정되었는바 이는 2018년도 9602억 원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2014년 제9차 특별협정 때의 인상률인 5.8%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인상률이지만 전체 국방 예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8년도와 같은 2.22%입니다.

다음으로 금번 특별협정에서는 제9차 특별협정 때와 비교하여 첫째, 군사건설 분야의 설계·감리비를 제외한 현금지원 가능 조항의 삭제, 둘째 미집행 현금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신설, 셋째 군수비용 분야의 미집행 현물지원의 이월 요건 강화, 넷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원비율의 상향조정, 다섯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한 한미 합동실무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제도의 개선과제 해결에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분담금 지원 항목 중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주한미군의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주둔을 위한 비용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협상 결과를 이끌어 낸 것은 중요한 협상 성과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개선과 관련하여 특별협정 제5조는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선언적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을 특별협정 최초로 본문에 포함시킴으로써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도개선 방안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사실상 1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곧 시작

될 차기 협상에서도 금번 협상 결과가 반영되고 또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편 동 특별협정 협상 과정에서 한미 양측의 방위비 분담 규모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해 공정한 주둔비용 분담체계 및 방식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부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체계 구축을 위해 차기 협상 전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일괄하여 대체토론과 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 업무보고

가. 외교부

나. 통일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라. 한국국제협력단

마. 한국국제교류재단

바. 재외동포재단

사. 한·아프리카재단

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4시27분)

○위원장 윤상현 의사일정 제7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비롯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9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체 기관에 대한 업무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최근 현안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 종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나오셔서 출석한

산하기관장 및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9년 첫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마지막 전체회의와 오늘 사이에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 등 많은 외교적 현안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모인 이 자리에서 당면한 외교적 과제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그리고 대응 현황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설명에 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기탄없는 지적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외교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혜와 통찰력을 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외교부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 제1차관입니다.

이태호 제2차관입니다.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입니다.

장원삼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입니다.

김인철 신임 대변인입니다.

유대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장재복 의전장입니다.

이상진 재외동포영사실장입니다.

김영완 신임 조정기획관입니다.

배병수 신임 의전기획관입니다.

구홍석 신임 남아시아태평양국장입니다.

강형식 신임 해외안전관리기획관입니다.

유기준 신임 국제법률국장입니다.

김영재 신임 국제경제국장입니다.

이동렬 신임 평화외교기획단장입니다.

다음으로 외교부 소관기관의 기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이미경 이사장입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시형 이사장입니다.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한·아프리카재단 최연호 이사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나머지 간부 소개는 배포해 드린 참석 간부 명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제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 일반 현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 평가 그리고 대응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4쪽입니다.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와 상응조치라는 핵심 쟁점에 관한 양측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북·미 양측이 회담 전후에 밝힌 내용 등을 바탕으로 보았을 때 금번 회담에서 미 측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그리고 비핵화를 향한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데 반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 관련 합의 도출에 집중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보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안보리 제재 결의 중 민생경제에 지장을 야기하는 제재의 해지 시 미국 전문가 입회하에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측은 북측이 요구한 상응조치는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이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므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결국 금번 정상회담에서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지만 양 정상 간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상호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정상 간 신뢰관계와 대화 지속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5일 최섉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평양 주재 외교단과 외신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입장에 대해 밝혔습니다.

동 브리핑에서 북·미 대화 중단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하였지만 최 부상은 북·미 정상 간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점도 동시에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 측은 북·미 대화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모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어렵게 살려온 대화 모멘텀이 유지되도록 하는 데 최우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합의 미도출로 민감한 상황인 만큼 양측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할 것을 계속 독려해 나가는 한편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복구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북측이 현명한 판단을 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측 입장을 토대로 양측 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미 양측이 갖고 있는 우리 정상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최대한 활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미국 등 관련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철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각급에서의 협의·조율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하여 북·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U 등 북한과 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과도 적극 협력하여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한 긍정적 대북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면서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 구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료 16쪽, 미세먼지 개선 관련 국제협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대기오염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간 양자·다자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양자 차원에서는 정상회담을 포함한 각종 고위급 회담 계기에 중국 측에 미세먼지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APEC 계기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대기오염 관련 양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였고, 올해 1월 서울에서 열린 한

중 환경협력 공동위에서는 지방정부 간 미세먼지 교류협력 확대 지원 등 미세먼지를 실제 저감하기 위한 협력 사업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다자 차원에서도 작년 10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북한 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대기오염 공동 대응 협력체인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출범시켰습니다.

외교부는 올해에도 다양한 계기에 중국과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 협의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질 개선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외교부는 환경부, 기상청 등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중국 측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고 올해 예정된 양국 간 경제공동위, 기후변화 공동위, 환경협력 공동위 등을 통해서 한중 간 협력사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을 통해서 동북아 국가 간 환경 협력을 촉진하고 대기오염 관련 과학적 연구 결과를 공유하면서 정책 입안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과학정책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는 등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이 협의체가 역내 실질적인 대기오염 저감을 이끌어 내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18쪽,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 관련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체와 항해기록저장장치가 올해 2월 심해수색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수거된 항해기록저장장치를 통해 생산되는 자료는 사고원인 규명에 사용될 것입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좀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9쪽,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현황 및 정부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과 11월 29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의 패소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의 실질적인 치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역사를 직시하면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일본 측의 입장 변화를 지속 촉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장관님 나오셔서 출석한 산하기관장 및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체제 틀 내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북·미 간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신뢰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회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통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통일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해성 차관입니다.

이덕행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남중 통일정책실장입니다.

정승훈 정세분석국장입니다.

이주태 교류협력국장입니다.

김병대 인도협력국장입니다.

최영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입니다.

김의도 남북회담본부장입니다.

백준기 통일교육원장입니다.

임병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장입니다.

이강우 남북출입사무소장입니다.

서두현 개성공단남북공동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이금순 북한인권기록센터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고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 최근 북한 동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 동향입니다.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및 당초급선전일꾼대회 등 정치 행사를 통해서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경제 성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북제재로 대외무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 등에 어려운 여건을 밝히면서 식량 지원을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미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중국, 러시아 등 우방국과도 고위급 교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측에는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관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남북관계 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와 비핵화·평화 정착의 선순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지원하고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당면하여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남북공동선언 이행 노력을 지속하고 여건 조성이 필요한 사업은 지금 가능한 준비부터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국내외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참여형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또 국제사회에 우리의 한반도 구상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교류협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재의 틀 내에서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체육 분야는 2020년 동경올림픽 공동진출과 2032년 올림픽 공동유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및 산불방지, 재난대응 등의 산림협력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 남북 간의 DMZ 평화공원, 문화재 공동발굴과 같은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남북경협을 위한 사전준비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재개에 대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경제 구상과 남북 공동특구 추진을 위해서도 우리 측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북측과 함께 공동연구와 현장시찰 등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서 역사유산 공동발굴과 겨례말큰사전 공동편찬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인도 협력 분야입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이산가족 면회소 복구와 화상상봉, 영상편지 교환 등을 추진하고 고향 방문, 전면적 생사확인 등 다양한 교류 방안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대화 시에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북 당국 간 보건의료 협력을 통해서 감염병 정보교환 확대 및 공동검역체계 구축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민간부문 인도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WFP,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해서는 금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를 계기로 해서 장애인, 여성, 아동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실태조사와 북한 인권 공감대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거주지를 중심으로 정착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중앙-지방-민간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직종 취업지원과 예비대학 확대를 통해서 자립·자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이와 함께 탈북민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 여러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 존경하는 윤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민주평통의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민주평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먼저 사무처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안나 기획조정관입니다.

전난경 위원활동지원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나머지 업무현황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질의 중 필요 시 위원장도 정해진 시간 범위 내에서 질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당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7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정진석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정진석 위원입니다.

조명균 장관님, 외교통일위원회 마지막 출석하시는 겁니까, 지금?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뭐 그렇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만두고 싶다고 그만뒀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후임으로 내정되어 있는 김연철 교수 잘 아십니까, 어떤 분인지?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런데 이분은 말씀을 막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이분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그렇게 가까우신 분이 아니라고 그래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정당 대표 시절에 군부대 위문 간 걸 가지고 비판하고 그런 언사도 언론에서 제가 봤습니다. ‘군복 입고 쇼하는 거냐?’ 이렇게 비아냥거렸는데 그런 걸로 봐서는 애당초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 인사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이분을 천거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 비슷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는 들어 본 적 없습니다.

○정진석 위원 아무튼 이분은 다음 청문회에 보기로 하고.

강경화 장관님, 대통령 동북아 순방 수행하셨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동남아……

○정진석 위원 동남아 순방.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런데 지금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아까 장관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지금 외교상황이 민감한 상황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그래서 회담 결렬 이후에 여러 가지 복기를 해 봐야 될 점도 있을 것이고 정확한 상황진단을 또 해 봐야 될 것이고 향후 후속조치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말 빠르게, 분주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으로 저는 예상했습니다만 의외로 매우 한가한 행보를 우리 외교부장관이 보이고 있어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수행한 이후에는 계속 서울에 머무르고 계셨지요?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진석 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위중한, 민감하기 짝이 없는 외교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외교부장관은 너무나도 운신이 한가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동남아 순방 3개국을 마치고 토요일 밤에 귀국을 했습니다. 물론 외교부장관이 여러 상대를 대상으로……

○정진석 위원 결론적으로 이도훈 대사 급파해서 비건 카운트파트 만든 것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이 상황의 무게감으로는 그것 가지고는 약하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적어도 장관이 직접 급히 워싱턴으로 가시거나 해서 사태의 전반적인 파악을, 진단을 하는 것이 맞는 수순 아닌가 그것이 상식적인 어떤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우리 외교부의 대응은 너무나도 소극적이다, 물론 우리 외교부의 역할에 어떤 한계 인식도 바탕에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장관도 동남아 순방 기간 동안에 북한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 내용을 대통령께 긴급보고 드렸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최선희 부상의 얘기는 결국 뭐니까? 지금 핵·미사일 모라토리엄 유지에 대한 입장 변경을 시사한 걸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좀 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회견 자체가 통역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언론사에 따라서는 조금 표현이 다른 방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최선희 부상의 얘기 중에,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국은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다’, ‘미국의, 워싱턴의 동맹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조선은 중재자가 아니냐라는 규정을 북한이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도 말이지요 자꾸 ‘개성공단 열어라’, ‘금강산 재개하자’, ‘대북제재 완화하자’라는 얘기를 국제사회에 하고 다니는 한국의 모습을 중재자로서 봐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미국도 북한도 다 한국을 중재자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의 중재자론은 셀프 중

제자론이야. 미국도 더 이상 한국을 중재자로, 촉진자로 인정하려 들지 않고 북한은 공식적으로 중재자가 아니라고 규정을 해 버렸고.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가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는 핵심 당사자이고 우리의 안보이익이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의의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중재자라고 하든 촉진자라고 하든 적극적인 역할을……

○정진석 위원 아니, 장관님 말씀은 전혀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하노이 회담 결렬, 실패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에 있습니까, 미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중재를 잘못된 한국에 있습니까? 회담 결렬, 실패의 책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책임을 어느 한쪽에 규명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석 위원 회담 실패, 공동 책임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모두 다 입장의 차이가 컸다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면 장관의 답변은 하노이 회담 실패의 책임은 공동의 책임이다, 미·북 양국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의 책임도 있나요? 우리는 책임질 게 없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니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 미국의 책임은 어떤 겁니까? 미국은 어떤 책임을 져야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협상이 결렬된 것에 대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다 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대화 관련해서 도움이……

○정진석 위원 아니지요. 외교현상에 대해서 분명히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번 하노이 회담은 모두가 인정하는 실패 회담이고 결렬 회담 아닙니까? 그 결렬과 실패의 어떤 책임이,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분석과 대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공개적으로 어느 일방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장관으로 말씀드리기는……

○정진석 위원 통일부장관님, 동창리 미사일발

사장 말이지요. 국방부에서 발표했어요. ‘현재 외형적인 시설은 복구가 거의 완료됐다’ 국방부 발표입니다.

그런데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미사일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관하여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북한은 지금 9월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동창리 복구한 것 관련해서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이 필요합니다.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해설을 요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해 주세요. 9월 달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평양에 가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을 했고 평양공동선언을 마렸지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정진석 위원 거기에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고 이것은 남북 간에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정진석 위원 그런데 그 합의가 이행되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통일부장관 조명균 아직까지는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은 다 무위로 그친 겁니까?

이런 현실을 곱씹어 가면서 우리의 현 대북정책 기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지해야 되는가, 외교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그야말로 허울뿐인 중재자 역할, 촉진자 역할을 계속 유지하는 게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본래의 한미동맹을 다시 정상화시킴으로써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

를 백지상태에서 새로 대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상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예.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는 무려 7시간 동안 두 정상이 솔직한 대화를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외교부장관님 견해는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화에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는 점에서 동의를 하고요, 서로 간 이해의 폭이 한층 깊어졌다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위원 미국은 사실은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미 간에 4개의 접점을 모색한 바가 있지요. 관계 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미군 유해 송환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한 것을 사실은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싱가포르에서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리고 이번 비건의 입장을 보더라도, 비건은 하노이 회담 전후로 스탠퍼드대 강연을 1월 말에 했고요, 최근에 카네기재단의 핵정책 컨퍼런스에서 길게 이 문제를 짚었어요, 직접 질문응답을 하면서.

그런데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저는 봐지는데, 왜냐하면 싱가포르 합의에서의 네 가지 핵심분야는 서로 링크, 연결이 돼 있다. 토탈 솔루션으로 진전시켜 나가겠다. 그 네 개를 궁극적으로 다 해결하는 것에 미국의 목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뢰 구축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대통령은 그런 궤적을 밟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전의 스탠퍼드대 강연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존 볼턴 보좌관 입장을 비건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국내에 그렇게 잘못 번역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상황을 오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비건 대표의 입장은 말씀

하셨듯이 스탠퍼드대 강연을 통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발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입장을 기본으로 북한과 실무협상을 주도해 왔고 카네기재단 발표도 그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가 됩니다.

○추미애 위원 통일부장관님,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입장발표가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추미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의 정치행사가 있었고 뒤이어서, 정치행사는 대내용인 거지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입장발표를 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것을 '실패한 정상회담이다'라고 자꾸 규정할 경우에는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어떤 나라든지 자국의 국내정치가 있어요. 그러면 강경파 또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그 틈새를 비집고 상황을 주도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아까 그런 질문처럼 마찬가지로 있고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치적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최선희 부상의 발언은 대외적으로 미국을 향해서는, 사실은 미국이 그 전의 실무회담에서 하지 않던 태도 급변을 보였단 말이에요. 마이클 코언의 그런 국내정치적 영향이 상당히 좌우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 존 볼턴이 갑자기 배석을 해서 골대를 많이 옮겨 버린 것이지요. 결승선을 많이 옮겨 버려서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을 미국 측에 알리면서 회담을 빨리 촉구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강경파한테 신호를 보내는, 강경파에 대해서 '이 회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 강경파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어떤 틈새를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정치 목적도 함축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우선 통일부장관님 견해부터 묻고 싶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방향으로 저희가 이번 최선희 부상의 회견 내용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북한 최선희 부상의 그런 대외 기자회견을 포함해서 북측의 의도라든가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더 파악하고 신중하게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외교부장관님께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통일부장관께서 하신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추미애 위원** 제재완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재완화, 아까 북·미가 하노이에서는 비록 접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신뢰를 보이는 실질적인 행동도 하겠다고 준비해 간 것 같고요. 또 그런 신뢰를 보인다면 당연히 제재완화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 이른바 핵 도발과 미사일 실험을 함으로써 부과된 그런 제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접점을 찾아가야지만, 완화하려는 그런 대화 의제를 삼아야지만 북한도 궁극적으로 그 마지막 네 가지 담판,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완전히 맞바꾸는 그러한 일괄타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비핵화를 견인해 내기 위해서도 사실은 ‘징벌적 제재는 완화해 주겠다’ 하는 그런, ‘대화 유도를 위한 판 깔기’ 그런 게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로요. 남북한이 서로 신뢰를 쌓아야지만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뿐만 아니라 징벌적 제재를 찾아내서 꾸준히 설득외교를 펼쳐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외교부장관님께서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셨는데 전략적으로 그런 설득외교를 어떤 내용으로 하겠다고 언론을 통해서 또 직접 미국 사이트에 제대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장관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 측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 미국은 그런 어떤 큰 그림을, 비핵화 관련해서도 큰 그림, 그다음에 상응조치에 관련해서 큰 그림을 갖고 협의하기를 원했는데 북한은 영변이라는 것에 한정을 해서 대화를 풀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결과가 됐습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모두 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이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징벌적이고 어느 것이 징벌적이지 아니라고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러나 우리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그런 제재완화, 분명히 논의할 때가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한 그런 비핵화 조치를 또 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미애 위원** 통일부장관님.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양측 간에, 특히 제재완화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계속해서 내용을 파악해 나가는 중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북·미가 다시 실무협상 재개를 서로 얘기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서 이런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위원님이 주신 말씀, 그런 내용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양측에 잘 설명하고 좁혀 나갈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위원** 장관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 박병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순서 바꿀 필요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지난 28일 하노이 회담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보도가 됐습니다만 도대체 미국은 어떤 주장을 했고 북한은 어떤 주장을 했으며 합의 결렬이 된 데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결렬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도가 된 일이 없습니다.

당연히 한미 공조, 특히나 동맹관계에 있고 또 남북 비핵화 내지 평화를 정착시키는 역할을 서로 다짐했던, 또 남북 간 정상들이 약속도 했고 그러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의 결렬 배경 원인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한미 간에는 회담 전후 또 회담 현장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진행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박주선 위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누차 공개를 했었고 또 당연히 그때도 그 이야기는 나왔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미국 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플러스알파를 요구했고 북한은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회담이 결렬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측 내지는 평가라고 생각되는데, 미국은 어떤 내용을 주장했고 요구를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박주선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일 없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미국은 큰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던 것으로……

○**박주선 위원** 큰 그림을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러니까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핵 미사일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북한의 그런 모든 시설을, 능력을 놓고 일단 큰 그림을 갖고 시작을 하자 한 반면에……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핵시설 그다음에 핵프로그램, 핵무기, 그다음에 대량살상무기 등등을 폐기하겠다는 다짐과 그다음에 검증 가능한 정도의 확실한 방안 제시를 요구했는데 북한은 거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어떤 것을 거부했다, 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너무 세부사항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런 주장에 대해서 북한이 동의를 안 해서 협상이 결렬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만일에 비핵화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한꺼번에 동시에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있는 실상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 측도 우리 측도 그런 포괄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요, 또 미국도 그런 입장에서 이번 회담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영변 핵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협상을 원했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진정한 비핵화를 한다면, 지금 북한이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또는 반응한 내용이 조금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은 이번에 합의를 하지 않았지만 또 리용호 외상이 기자회견에서 ‘지금 단계의 북·미 간의 신뢰에 있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다’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지를 남겨 놓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선 위원** 여지는 남겼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중재자의 입장에서 북·미 대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텐데 언제쯤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고 재개가 되면 어떤 내용이 서로 타협안으로 제시되고 거기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시간을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측, 지금 강은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미 측으로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밝혔듯이 ‘대화를 지속하겠다’ 하는 의사를 분명 표명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부상의 회견 내용도 보면 대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시간이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측 다. 그래서 그 회담의……

○**박주선 위원** 그러니까 중재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미 회담 재개가 언제 될지 또 되면 어떤 내용으로 타협안이 마련될지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저희로서는 물론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주선 위원**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우리 NSC 개최된 일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북·미 간 회담을 다시 중재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중재하려면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특사도 보내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고 또 특사도 보내고 그런 절차가 필요할 것인데 그런 논의가 됐거나 그다음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여러 가지 옵션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검토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주선 위원** 어떤 점을 계속 검토를 해야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렸듯이 지금 계속 양쪽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 메시지의 의도를 충분히 분석을 하고 나서 외교력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주선 위원** 아니, 메시지가 앞으로 몇 개나 나올지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특사를 보낸다는지 해가지고 지금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메시지 나오면 무슨 취지로 메시지를 낸 건가, 의도가 뭔가, 또 북한이 내보내면 그것 분석하고 있다가, 시간만 전부 가 버리고 비핵화는 언제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박주선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내를 오판해 가지고 제재·압박을 계속 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신년사를 했어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최선희 부상이 며칠 전에 ‘북·미 대화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노이 회담 직후에 리용호 외상이나 최선희 부상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북·미 대화를 계속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행동계획에 대해서 곧 성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성명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리라고 예측하거나 또는 기대를 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성명이라고 몇 외신들에서 보도가 됐지만 저희가 좀 더 파악해 보니까 영어로는 클래리파이(clarify)라고 번역을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최선희……

○**박주선 위원** 그것도 성명 중의 하나 아니에요? 분명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건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비핵화 상응조치 관련해서는 합의가 없었지만 싱가포르 합의의 나머지 축, 평화체제라든가 북·미 관계 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재개된다 하면 분명히 뭐가 쟁점이 될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입니

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서 한미공조하에서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선 위원** 1분 주셨어요?

○**위원장 윤상현** 드렸습니다.

○**박주선 위원** 1분 표시가 안 됐는데……

○**위원장 윤상현** 드렸습니다. 똑같이 다 드렸습니다.

○**박주선 위원** 그러면 30초만 더 주세요. 1분 표시가 안 됐어요.

○**위원장 윤상현** 예.

○**박주선 위원** 통일부장관님,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인 바람은. 그런데 어쨌든 오늘이 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대북제재가 시행이 되고 특히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측에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그토록 애를 써서 만들었던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은 대북제재의 효과를 더 이상 감당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박주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북한에게 미국과 함께 똑같은 목소리로 대북제재가 강화될 수밖에 없고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는 도와줄 것이 별개 없으니 진정하게 미국 측이 요구하는 핵 포기 프로그램을 또는 로드맵을 제시해라,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서 돕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경협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개성공단·금강산 재개에 대해서 미국 측과 협의를 해 보겠다…… 저쪽의 돌아오는 답은 ‘노(No)’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남북경협을 말씀하는 대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북·미 또는 한미 관계에 혼선만 야기하는 중재자가 아니라 방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상현** 질의를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말씀하신 사항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그런 대화를 지속해 나가고 또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 나가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국 측이 북한에다 제기하는 그런 것들을 촉구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저희가 잘 균형 있게 살펴 가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성 위원 작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서훈 또 저기 있는 천해성 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3월 8일에는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정의용, 서훈 특사단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상투 수단이었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미국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를 불러 온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해성 차관, 그때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기에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까?

○통일부차관 천해성 지난해 3월 특사단 일행이 갔을 때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인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되어서 분명히 의지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 특사단 일행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김무성 위원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무성 위원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으로서 미군 철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천해성 특사단과 관련해서 그런 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는 그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김무성 위원 그 말은 감출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통일 전문가가 갔을 때에 수십 년

간 북한이 주장하던 것은 한반도 비핵화 아닙니까,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저는 수차례에 걸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절대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북한 비핵화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그동안 많이 해 왔는데 결국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러한 실패를 가져오게 된 것 아닙니까?

○통일부차관 천해성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이미 92년부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에 합의된 표현이고 또 저희가 그동안 계속 노력해 왔던 정책목표이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위원 똑같은 말입니다. 들어가세요.

특사단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지난 1년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켰고 남북군사합의로 방어벽에 구멍을 뚫어 버렸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흔들어서 놓았습니다.

이때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 개인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세미나와 또 이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더 강화하고 북한을 더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북한 비핵화라고 말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무지개를 좇을 때 누군가는 낭떠러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 정책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충정된 우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다는 식으로 폄하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6일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하노이 회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김정은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그러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노이 회담 실패에서 확인한 것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고 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제재 해제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재자 김정은이 자신들의 3대 세습왕조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렵게 개발한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실험을 성공하고도 포기한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하나뿐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수소폭탄 핵탄두와 ICBM까지 개발한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핵 폐기 전략을 짜고 근거 없는 낙관보다는 오히려 미·북 정상회담 실패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기 불과 25분 전까지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사실상 헛소리를 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회담 이후 대북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안보실 1·2차장을 교체하는 김창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평소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고 특히 폼페이오 장관과는 전화와 문자로 수시로 소통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 임하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문제점을 장관은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외교부로서는 미 측과 긴밀히 소통을 하면서 협상 진행과정 또 미국의 협상전략에 대해서 긴밀히 공조를 하고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무성 위원 공조하고 있었다는 말은 결국은 이렇게 결렬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미 측으로부터 실무협상에서의 논의와 별도로 정상회담의 결과는 결국 정상들끼리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협상에서 어떤 예단을 하기 어렵다 하는 그러한 감도 저희가 충분히 전해 받았습니다.

○김무성 위원 정상회담의 국제적 관례는 바텀업인데 미·북 정상회담은 톱다운 식으로 해가지고, 싱가포르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비건이 주장하는 것과

이런 것을 다 종합해 볼 때는 이것이 합의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장관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상을 떠나서 미 측으로부터는 충분히 그 과정을 설명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무성 위원 설명 들었다면 대통령에게 이것이 예측 불가능하다 하는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대책 없는 낙관론으로 우리나라 외교안보를 최악의 위기로 몰고 간 것이 바로 이 정부의 현주소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불과 25분 전에 이게 합의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이러한 발표를 하게 만들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간의 서명식을 시청하는 이벤트까지 준비해 놓았는데 회담이 결렬되면서 청와대가 상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외교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잘못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 측과 소통을 통해서 저도 출장 중에 대통령께 직접 보고도 드렸고 또 청와대 측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다고 외교부로서는 생각합니다.

○김무성 위원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미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정보는 사전에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북한은 우리에게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라서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외톨이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서 이를 갈라파고스 외교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외교안보 라인이 이 실패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고 전부 그만뒀어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지난 1년,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반도는 평화의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세계사적 변화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2월 말 하노이 회담 이후에 2주 남짓 동안에는 한반도에 상당한 난기류가 흐르는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차 하노이 북·미 회담을 실패나 결렬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고 또 양 정상에 네 차례에 걸쳐서 7시간 동안 무릎을 맞대고 논의하면서 문제의 핵심과 본질에 접근했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있는 지름길로 가고 있다고 볼 것이냐라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물론 모든 상황이 단기, 중기 또 장기적으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하노이의 성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완전한 비핵화 또 항구적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그 긴 과정에 있어서의 중요하지만 역시 또 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합의 결렬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비핵화 대화가 더욱 속도감 있게 촉진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의 역할을 다하려고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의 역할에 있어서 그동안 중재자다, 촉진자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한국 정부가 ‘당사자적 촉진자’라는 말씀을 공식용어로 채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번에 북·미 회담이 비록 합의문을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실무진들이 만들어 놓은 초안에는 바로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연락사무소의 설치, 종전선언 그리고 인도적 지원 등 상당한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요청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미 측으로부터 나온 공개적인 발언에 보면 종전선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에서 합의되었던 그 네 가지 큰 축에 있어서 비핵화 상응조치를 제외한 평화체제 그다음에 관계 개선에 대해서 실무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합의 가능한 점들도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협상이 재개가 되는 경우에는 비건 대표도 ‘이 모든 것이 평행해서 나가야 된다. 평행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적인 그런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박병석 위원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동창리 미사일시험장을 복구했다는 의미에 관해서 이것이 바로 미사일의 재발사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북한은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간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그 합의에 이르면 상징적으로 동창리 미사일발사기지를 폭파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이 합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견해가 있고 저는 후자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후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비핵화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핵의 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당사자이지 한국은 같이 논의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남북한과 미국이 같이 논의하는 틀이 정형화됐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사자적 촉진자로서 미국에는 우리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미국도 대북제재, 특히 남북한의 경험에 관해서는 한국에 상당한 재량권, 즉 ‘유연성을 줘라’ 하고 요구를 해야 되고 북한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 갈 사람은 유일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진정성을 믿고 또 당신들도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당사자적 촉진자로서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 방향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북한이 2017년도까지 계속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대한, 거기에 대한 유엔 대북

제재가 가해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아직은 상당히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저희가 감안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을 찾아 나가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 위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노이 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에 대한 정리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북한이 어떤 주장을 했고 지금은 어떤 입장이냐에 대한 것은 아직은 탐색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완전히 복기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당사자적 촉진자의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의 분석이 끝나면 이제 남북 간의 본격적 대화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병석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우선 남북 간의 공개대화보다는 비공개대화가 좋겠다. 일정 수준의 합의가 되면 공개적 실무협상을 또는 고위급회담을 하라. 그다음에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김정은의 방남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 작년 5월 26일 판문점의 원포인트 회담처럼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한미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두 분 장관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측의 하노이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선희 부상의 회견이 있었습니까만 그 밖의 다른 여러 가지 메시징(messaging)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양측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분석 위에 북한과의 그런 대화, 그게 어떤 형식으로 되든 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인 일정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상황 진전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앞으로 우리가 남북 대화를 재개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 이를 통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추동해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 외교부장관님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미국의 전례 없는, 아까 ‘최고위’라고 말씀하셨던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압력 속에 가까스로 체결된 1년짜리 합의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윤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번 비준동의안을 철저히 심사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반드시 공청회를 열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예.

○천정배 위원 장관님, 원칙적으로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는 ‘미군의 시설과 구역은 우리 한국이 제공하고 미군 유지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럼에도 실제로는 그동안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이 막대한 경비를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좀 뭔가 본말이 전도돼 있습니다.

특히 작년 말 종료된 9차 협정하에서 한국이 부담했지만 미국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군사시설비 9864억, 군수지원비 562억, 미군 현금보유 2884억 등 합계 1조 3310억입니다. 수치 맞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렇습니다. 엄청난 돈을 지금 사실은 안 쓰고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번 협정에서는 한국의 분담금이 전년 대비해서 787억, 비율로는 8.2% 증가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지난 9차 협정 때는 전기 마지막 해에 비해서 5.8% 증액이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도 매우 높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천정배 위원** 뿐만 아니라 지난 9차 협정 기간 중에는 평택기지 건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한 소요 금액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번 기간은 사실은 기지 건설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군사시설 소요는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매우 명백한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매우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회, 국민한테 충분히 납득이 되는지는 이번 비준동의 처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 유념을 하겠습니까만 정부로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타결을 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미집행분은 군사시설 분야, 군수지원 분야 다 현물지원분으로 미집행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금으로 남아 있는 2800억여 원에 대해서 미 측의 사용계획이 이미 제출이 돼 있고 국방부와……

○**천정배 위원** 일부 보안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많은 금액이 아직도, 원래 예정됐던 금액이 안 쓰여지고 남아 있는데 그게 1조 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1조 원 이상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다음에 협정 부속의 이행약정안 4절 4항 다 인데요, 여기를 보면 특정시설 건설에 비한국 업체, 말하자면 우리 한국 업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업체를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것 같은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동안에 미국이 주피터 프로젝트라는 생화학무기 관련시설,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들을 부산 8부두, 평택 등지에 우리 정부도 모르게 건설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져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 이것은 사실입니까, 단순한 의혹입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아서, 혹시 우리 관련 국장이라든가 방위비분담 대사께서……

○**천정배 위원** 우선 놔두시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우리 정부 입장이 이것을 사실로 보고 있는지, 미군이 이런 일을 했다

는 것을 사실로 보고 있는지 아직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의 의혹인 것인지 지금 당장 답변 안 해도 좋으니까요 다음 보충질문 때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천정배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번 협정의 바로 이 ‘비한국 업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결국 미국이 비한국 업체를 고용해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하고 유해한 시설, 아까 이런 생화학무기, 탄저균 하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정부나 군조차도 알 수 없는 상태로 건설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비한국 업체 활용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한 전제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군사적 필요와 수요가 있고 또 가용한 현금보유액이 부족하고 또 한미가 협의하고 합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저도 조문 알고 있습니다. 조문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피터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 우리 정부나 군에서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실제이고 역사 아닙니까?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이미 다 과거에 언론에서 많이 나고 몇 년 전부터 난리가 났었지요, 부산이나 이런 쪽에서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미국이 투명하게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보여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았군요. 그냥 한번 지적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속협약 제6조. 아, 부속이 아니라 이것은 본협정이군요. 본협정 6조에 보면 한미 합동실무단을 구성해서 제도개선을 논의키로 한다는 건데 이것도 미국이 지난 협상 과정에서 고집했지만 우리로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예컨대 작전지원비 항목의 신설이라든가 보호비 지급 등과 같은 현금지원 등의 가능성 이것을 추후 협상에서 열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 문제도 우선 지적만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행약정 5절 2항에 보면 기지운영 지원 분야에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가스·상수도·하수처리비용 또 저장·위생·세탁·목욕·

폐기물처리 용역 등의 항목 이것을 지금 지원대 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천정배 위원** 저 1분만 더 주시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으로는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작전지원 항목 비용을 지급하게 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예컨대 제주해군기지 등에 미국의 핵항모 같은 게 들어와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그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는 분담금 협정의 기본 취지가 주둔하는 미군에 대한 지원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 군수지원 항목을 운영한다는 원칙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우리의 원칙은 그렇지만 미군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아까 그 일처럼 말입니다.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다시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 윤상현 위원장님, 취임 축하드리고요. 공청회 꼭 좀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천정배 위원님.

또 하나는 저는 캠프 험프리 평택기지를 우리 외통위에서 한번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윤상현** 오케이.

○**송영길 위원** 실제로 외교부장관님, 우리가 91년도부터 SOFA협정 외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는데 총 16조가 넘는 돈을 지급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우리가 감사원 감사나 회계감사를 한 사례가 없지요? 한 번도 못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감사원이. 16조가 되는 국민 혈세가 쓰여진 이 방위 분담에 대해서 현금이 남았는지 어디다 전용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알기로는 방위비분담금도 국방부 예산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통상적으

로 받는 결산회계 감사를……

○**송영길 위원** 아니에요, 감사원이 감사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확인해 보세요.

장원삼 대표 한번 일어나 보세요.

고생하셨는데요.

SMA 10차 협정에 ‘주한미군 시설의 유지용역’에서 ‘주한미군’을 삭제한 이유가 됩니까?

제9차 이행약정상의 주한미군 시설의 유지용역에서 주한미군이 삭제됐어요. ‘시설의 유지용역’ 그래서 이행약정 5절 제2항 차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때 한미 간에 합의할 때, 사드 합의 시 한미 양국은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사드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대표 장원삼**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이번의 방위비분담 이 비용을 사드 운영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대표 장원삼** 미국과의 협의과정에서 미 측이 사드비용 문제를 전혀 언급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전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우리가 회계감사도 못 하는데요?

○**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대표 장원삼** 그 구체적인 분담금 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한미군사하고 국방부가 협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송영길 위원** 아니, 만약에 올해 말까지 당장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연장이 됩니까, 없어집니까?

○**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대표 장원삼** 지금 저희가 단서조항에서 양측이 문서로 합의할 경우에는 계속……

○**송영길 위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대표 장원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송영길 위원** 종료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대표 장원삼** 예,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면

당장 또 협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대표 장원삼 그
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데 따르면 주둔비용 플러스 50%, 약 3조를 지급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워싱턴포스트에
나온 것 보셨지요?

○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대표 장원삼 예,
봤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런데 새너해 국방부장관 대행
은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
이 나왔습니까?

○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대표 장원삼 10
차 협의과정에서 미 측이 비공식적인 석상에서는
그런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한
테……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대표 장원삼 공
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송영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1조 389
억, 이번의 8.2% 인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개념을 바꾸어서 내
년 대통령선거 때 자신의 업적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 주둔비용 플러스 50%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여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도
브 자크하임 미 전략연구소 선임고문이 이런 행
위에 대해서 ‘뉴욕 브루클린 마피아를 연상하게
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을 비판
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동아시
아 담당 국장은 ‘깡패들이 상인 보호세를 뜯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대표 장원삼 예,
미국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른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해서……

문제는 이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회계
감사의 문제하고, 우리가 용역에 방위비 분담을
하더라도 자동이월되고 우리 예산회계법상 불용
액이나 잔액이 남으면 다 어떻게 해요? 국고에
환수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대표 장원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송영길 위원 ‘노력한다’로만 합의되어서 아주
약한데 집행과정을 좀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
다.

○외교부한미방위비분담협상TF정부대표 장원삼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념을 해서 이번
에 일부 진전된 제도개선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위원 조명균 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 북의 1차 핵실험 이후로 제재
결의안이 열한 번 있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엔에서……

○송영길 위원 마지막 결의안이 2017년 11월 화
성 15호에 대해서 2397호……

거기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서 정제유를 1년 한
도를 50만 배럴로 한계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
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송영길 위원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에 쓰는 정
제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위원 255만 배럴입니다. 우리 대한민
국 경제, 우리 국민들이 쓰는 하루 정제유가 255
만 배럴, 1년에 8억 배럴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북한 경제가 우리의 40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2500만이 먹고사는 동네인데 대
한민국 국민이 쓰는 255만 배럴의 5분의 1에 해
당하는 50만 배럴을 1년 동안 먹고살라고 규제하
고 있는 것이 이 제재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강경화 장관님,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유엔이 이라크에 대해 코피 아난 총장 때 제
재를 했습니다. 유엔에 계셨으니까 잘 알고 계시
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오일 포 푸드(Oil-for-Food) 프
로그램을 통해서 최소한 이라크 국민이 먹고살
수 있도록 기름과 음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허용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독직 사건이 있기는
했지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송영길 위원 거기에 따르면 그때 오갔던 총액
이 얼마인지 압니까? 잘 모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제가 확인을……

○**송영길 위원** 45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라크를, 침략한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민이 먹고살 수 있는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허용해 주었는데 북한은 지금 당장 이번에 어디를 침략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핵실험도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도 중단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50만 배럴밖에 안 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쓰는 하루 양의 5분의 1을 주면서 제재를 강화하자면 아예 2500만 백성들을 그냥 죽이자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번에 월드푸드 플랜(World Food Plan) 평양사무소장 만나 봤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는 직접 만나지 않았습
니다.

○**송영길 위원** 제가 이번에 만나 봤는데요.
(비스킷을 들어 보이며)

월드 푸드 플랜이, 'WFP'라고 적어져 있습
니다. 지금 북한에서 이 시리얼, 비스킷을 만들어
가지고 5세 이하 북한 어린이들에게 이것을 제공
하고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것 제공할 때
혹시라도 이게 북한 군인들 건빵으로 전용되지
않느냐'. 철저히 재고도 안 남기고 딱 목적사업에
맞추어 가지고 아이들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비
디오로 다 찍어서 검증이 된다고 그러합니다. 그런
데 5세 이하 아이들한테 이 비스킷 하나 주는 것
을 안 줘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탈북자들 보면요 키가 너무 작아서 만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키가 현저하게, 외면
상으로도 탈북자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발
육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다 우리가 통일되어
야 될 우리 한 식구, 한 핏줄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합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작년에
국무회의에서 800만 불, 450만 달러를 월드 푸드
플랜에, 350만 달러를 유니세프에 주기로 했는데
집행을 왜 못 하느냐고요. 미국이 그것을 반대하
는 것은 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이 800만 불 집행을 한
번 신청해 봤습니까, 통일부에서?

제가 미국 부대사 만나 봤더니 미국이 반대하
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이 반
대하거나 뭐하거나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무회
의가 의결한 건데, 유엔 제재 대상도 아닌데, 5살

이하 어린이들 입에 넣어 주는 우유하고 임산부
한테 우유를 안 주면서 어떻게 신뢰를 쌓아서 핵
을 포기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북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거나 핵실험
을 계속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어찌 됐건 표
면상 중단하고 있고 안 한다 그런데 이것조차
도 안 주면서 무슨 놈의 비핵화를 요구하느냐는
말이에요. 무슨 신뢰를 가지고 비핵화를 하겠어
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벌써 거의 2년 전에 그런 결정을 하고
서 아직까지 국제사회와 협의를 다 마치지 못하고
지원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우선 조명균 장관님한테 묻겠습
니다.

지금도 북한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핵 포기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높
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김재경 위원** 뭘 가지고 그렇게 믿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요약을 하자면 어쨌든 김정은 위원
장으로서의 자신이 북한의 새로운 후계자로서 북
한을 제대로 된 나라,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비핵
화를 통해서 경제건설에 필요한 체제안전 보장이
라든가 경제적 지원 그런 것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적인 구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
다.

○**김재경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머
리에 그리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제는 우리 국민
들도 그것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65%, 70%의
국민이 북한은 절대 핵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닌 국민들도 알아요.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장관님은 좋은 면만 보시는데 좀 더 실체를 들여다보면 형과 고모부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미국의 지도자들이 적나라하게 바로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엇그제 미국 정보국장 댄 코츠라는 사람이 발언한 것 언론을 통해 보셨지요? 못 보셨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북한 지도자는 핵무기를 정권 생존에 매우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여기에서만 서너 차례 했습니다.

저는 절대권력을 쥐어 본 사람은 아니지만 절대권력자의 고독을 우리가 꿰뚫어 봐야 돼요. 김정은이 잠이 오지 않는 혼자 있는 밤 뭘 생각하겠습니까? 북한 인민들을 배불리 먹일 그 생각하겠어요? 아까 우리가 김정은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했잖아요, 서로 견해는 다르지만. 죄송하지만 핵을 놓는 순간 내가 죽고 우리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절대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소련의 어떤 진짜 절대권력자의 별장을 가 봤는데 등받이가 이만큼 높은 거예요. ‘그 사람 키가 컸나 보지요?’ 이러니까 ‘에이, 의원님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래요?’ 이러니까 그것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는 뒤에서 누군가가 총을 쏠 것을 두려워하는 그게 바로 절대권력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솔직해져야 돼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적나라하게 할게요.

그동안에 평화 이벤트 진짜 많이 했거든요. 평창, 우리 그때 소위 말해 가지고 잘못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잘되기만을 저희들도 지켜봤어요. 평창에서부터 시작해서 도보다리에서 두 분이 차 마시고 평양 가고 백두산까지 가 가지고 하는 그 이벤트를 저희들도 보고 있었습시다. 다 잘될 것으로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고 묘하게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의 지지도가 좀 추락할 경우에는 그게 그야말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일등공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정부도 부인 못 합니다. 그리고 포퓰리즘적인

경제정책하고 이 두 축이었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제는 긍정·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이상 약발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는 국민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상황을 이해시키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진짜 처음 하는 것 아니고 똑같은 이야기 여러 번 했지요.

이제는 우리 정부도 영어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위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가다듬어가야 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재네들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왜 핵을 못 가지나, 전술핵 재배치해야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는 제 입장에서 그 이야기까지는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도 살 도리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완전히 3대 연합훈련을 다 축소해 가지고 의미조차 찾기 어렵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GP 부수고. 이런 것 이제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아야 됩니다.

안보태세를 보다 더 확고하게 강화시키는 방안을 정부 측에서 다 가지고 있지요. 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 이제 국민들 앞에 내보여 가면서 좀 더 진솔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리고 강경화 장관님한테 물어볼게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김재경 위원** 며칠 전 워싱턴포스트에 보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혹평한 기사가 있었어요. 아까 김무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라파고스 외교 비슷한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집권 이후에 지금 가장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나경원 대표가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 대통령의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이 표현 이게 국내에서 정적들뿐만 아니라 이미 미국과 유엔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우리 대통령이 미국의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다면 북한의 신뢰라도 얻어야 되는데 최선회가 아래 뭐라 했습니까? ‘느그는 동맹국인데 어떻게 중재자냐, 플레이어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쪽저쪽으로부터 신뢰를 다 잃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난관을 뚫고 갈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께서 미 측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하는 언론기사들도 있지만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하노이 직후에 대통령께 통화를 해서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누차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는 여전히 돈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이번에 순방을 통해서 여러 나라를 다녀 봤지만 여러 나라에서도 외교 당국 또 그 나라 정상들에서는 우리 대통령에 대한 대화 국면 또 평화적 해결 모멘텀을 만들어 내신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평가를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재경 위원** 딱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대통령으로 하여금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좀 많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뉴스 보니까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수사 철저하라’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그것보다 훨씬 큰 고민을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시간들을 좀 드리세요.

.....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 심재권 위원입니다.

지난번 2·27 하노이 회담에서 불턴 보좌관이 빅딜을 요청하는 노란 봉투를 건넸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런 질문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요구한 게 정확히 뭐니까?

그 노란 봉투의, 빅딜의 내용이 뭐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저희도……

○**심재권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동맹으로서 그만큼 서로 신뢰하면서 함께 일한다고 하는데 그런 봉투 내용을 사전에 알아야 되고, 정히 안 된다면 사후에라도 알아야지요.

그동안 여러 언론보도를 볼 때 소위 WMD 제거, 그것을 통틀어서 제거하고 북한이 선 비핵화를 해야 한다 이게 주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은 선 비핵화라기보다도 동시적으로 가야 된다, 인 패러렐(in parallel), 동시적으로 가야 된다 하는 입장을 갖고 이번에 회담에 임한 것 같습니다.

○**심재권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은 약간 오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괄 타결의 대상으로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로서 일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잘,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것은 좋고요.

저는 지금 북·미 간에 또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해서 비핵화 회담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WMD까지 확충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런 생화학무기 당연히 없어야지요.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핵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만 처리하기로 우리가 노력한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한 일이고 바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불턴 안보보좌관 이야기하는 WMD까지 포함하는 이런 비핵화의 개념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 측이 이번에 목표로 삼았던 것은 핵·미사일 그다음에 모든 WMD의 동결이었습니다, 당장에 그것을 폐기하라는 것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비핵화와 관련해서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최종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 그리고……

○**심재권 위원** 어쨌든 지금 이 비핵화 논의에 있어서는 대상을 핵무기로 국한시키는 것이, 핵무기 또는 그와 관련되는 그런 제반 요소로 국한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점을 우리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턴 안보보좌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경한 발언들을 해 왔습니다. 리비아식 해결이 있어야 한다라든가 심지어는 군사적 공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도 선제타격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도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의 하노이 회담 결렬을 보면서 또 불턴 보좌관이 그런 강경한 입장을 갖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어느 한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불턴 보좌관이 과거에는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

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대한 그러한 본인의 노력도 충분히 공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그런 군사적인 고려라든가 선제 이것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심재권 위원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최설희 부상이 이야기를 하는 핵심 내용이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상응하는 조치 없이는 더 이상 협상을 앞짚다, 그리고 또 핵·미사일 동결에 대해서도 조만간 검토가 있을 것이다 대략 이런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장관께서도 최설희 부상의 핵심 내용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으로서는 분명히 상응 조치에 방점을 두고 그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대화에 대한 여지도 남겨 놓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재권 위원 지금 미국 측의 공식 반응을 보면 ‘우리는 대화를 계속 기대한다,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이런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설희 부상이 말한 이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에 대해서는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구체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협의가, 지금 계속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응 조치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한미가 공조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황은 그렇게까지는 안 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메시징에 나온 여지를 통해서 최설희 부상이 다른 형태의 협상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발언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심재권 위원 그런데 미국의 반응이 제가 언론 살펴보기로는 아직 정확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협상이 앞으로 계속 될 것이냐, 대화가 계속 될 것이냐에 이번 최설희 부상의 발언이 핵심 관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미 양측에 대해서 모두 우리 정부가 보는 비핵화의

복안 그리고 해 나가야 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지난 2018년 3월 5일인가요 아까 천해성 차관도 같이 가셨던 것 같은데, 그때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때 명백히 두 가지 조건을 붙였습니다, 무조건 비핵화가 아니었어요. 군사적 위협의 해소, 그다음에 국제적인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 이게 있다면 비핵화를 하겠다 이랬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 방향, 의도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 점을 함께 검토를 해야지,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치 않으면서 나타나는 일반적 행위만 가지고 비핵화를 의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반드시 비핵화는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는 당연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상 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전제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적대적인 행위 해소 그리고 당연히 제재 완화 또는 해소도 함께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함께 갈 때만이 비핵화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6시09분)

○위원장 윤상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잠시 현안질의를 중지하고 위원장과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로 상설소위원회 위원장 개선의 건을 추가 상정합니다.

8. 상설소위원회 위원장 개선의 건

○위원장 윤상현 의사일정 제8항 상설소위원회 위원장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위원의 변동에 따라 상설소위원회 위원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남방소위원회는 본인이 사임하고 박주선 위원이 소위원장에게 보임되었으며, 유럽·아프리카소위원회는 김재경 소위원장이 자유한국당 간사 위원에 선임됨에 따라 강석호 위원이 소위원장에게 보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대로 소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된 유인물대로 상설소위원장이 교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업무보고(계속)

가. 외교부

나. 통일부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라. 한국국제협력단

마. 한국국제교류재단

바. 재외동포재단

사. 한·아프리카재단

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16시11분)

○위원장 윤상현 그러면 현안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통일부장관님, 금강산 관광이 안보리의 대북제재의 대상이 됩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관광 자체는 아닙니다마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서 접근한다면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재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2094호 현금지원,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니까 이 부분에 걸리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것도 있고 관광을 재개하자면 많은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정병국 위원 그렇지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원인을 무엇으로 보세

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우리 관광객께서 거기에서 불의로 사망한 사건이……

○정병국 위원 고 박왕자 씨께서 총격사건으로 인해서 사망한 이후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정병국 위원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과 대가 없이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지난 신년사에서 발표를 해요.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환영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가 해결된 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화답을 합니다.

이게 금강산 관광을 위해서 북한이 반대를 해서 안 된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재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부분 중에서……

○정병국 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데, 북한과 풀어야 될 과제가 뭐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한은 우리 금강산 관광에 있는 우리 소유의, 정부 소유라든가……

○정병국 위원 잠깐만 보세요.

이게 중단된 이유는 고 박왕자 사건이 나자 우리 정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 규명을 해야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진정한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풀어야 할 과제가 저는 이것이라고 보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 전제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재개하겠다고 하면 이게 풀리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전제하에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 뭐, 장관께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답은 듣고 싶지 않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관 후임으로 오시는 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사건을 일련의 우리가 거쳐야 될 통과외레라고 우리 장관도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썄요, 그것에 대해서 제

가 지금 뭐라고 판단을 말씀드릴……

○정병국 위원 아니,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과의례라고 볼 수 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는 상당히 있어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예, 됐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이번 하노이 2차 미·북 회담, 결과는 없었지만 저는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의미 있는 대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는 관점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한 대화, 저도 동의해요. 이해의 폭이 두터워졌다? 이해의 폭이 두터워지면 가까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여기서 저는 확인했다고 봐요.

그동안에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비핵화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생각 다르고 미국이 얘기하는 것 다르고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고 이 자체가 개념 정의가 모호함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에게는 많은 오해를 낳게 했고 여야 간에 정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번 하노이 정상회담이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북한 비핵화의 개념 정의가 명확해졌다 하는 겁니다. 그 개념 정의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세밀하게 다 봤고 또 그 이후에 폼페이오 장관이라든가 미 관계자들의 설명도 자세히 본 결과 완전한 비핵화의 개념은 핵물질, 미사일, 핵탄두를 비롯한 프로그램의 폐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기본 원칙하에서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국회의장님을 모시고 5당 대표와 우리 외통위의 위원장, 여야 간사가 함께 지난 2월 달에 미국을 방문을 해서 미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의회 지도자들 또 정부 지도자들을 죽 만 나면서 모든 사람들로 부터 들은 얘기는 ‘완전한 비핵화가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 하는 얘기가 기본 전제였어요. 정부도 그런 입장을, 저희가 들은 것 말고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신 이전에는……

○정병국 위원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통일부장관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년사 읽고 또 그 이후에 화답을 우리 대통령께서 하시고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 경험을 재개를 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통일부장관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협의하겠다, 그 이후에 미국과 무슨 협의를 했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바로 직전에……

○정병국 위원 지난 NSC 회의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3월 달에.

○통일부장관 조명균 바로 직전에도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간의 워킹그룹 회의가 있었지만 그런 계기 때마다 우리가 현재의 제재 틀 내에서 또 현재 상황을 감안한 그런 틀 내에서……

○정병국 위원 아니, 미국의 입장이 뭐냐고요. 그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의 입장은 뭐예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하고 계속해서 더 협의를 해 나가자라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일단 있었습니다.

○정병국 위원 아니, 지금까지의 결과는 뭐냐고요. 답을 못 들은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계속 협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좀 더 협의를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리고 천해성 차관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잠깐만 나오세요.

1분만 더 쓸게요.

남북연락사무소는 우리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의 결과로 개소가 됐어요.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리고 그 남북연락사무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남북 현안 문제를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건 맞지 않습니까?

-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렇습니다.
- 정병국 위원** 그래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미·북 간에 결렬된 뒤에 몇 번이나 만났어요? 한 번도 못 만났지요?
- 통일부차관 천해성** 소장회의는 지난주에 열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정병국 위원** 아니, 못 했잖아요?
- 통일부차관 천해성** 예, 그러나 이제……
- 정병국 위원** 그러면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 이후에 북한의 입장이 뭐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들으셨나요? 결렬된 이유가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들으셨나요?
- 통일부차관 천해성** 하노이 회담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협의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니다.
- 정병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도 귀국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개 역할을 잘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중개를 하려고 하면 북한의 입장이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또 미국의 입장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경화 장관께서 직접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입장이 뭔지 들었어야 되는 거고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남북연락사무소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북한의 입장이 뭔지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북한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었고 미국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었고 꼭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양치기 소년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황당해진 거예요.

- 위원장 윤상현** 종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병국 위원** 이것을 신뢰 회복하려고 하면 이렇게 먼저 급속히 앞서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정부 관계자들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위원장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혜영 위원** 질의를 드리기 앞서서 우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3월 그리고 그 후반기에 이렇게 열리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국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북한의 비핵화를 핵심으로 한 북·미 간의 협상 그리고 또 남북 간의 전쟁 대결 상태를 평화구조로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와 노력들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최소한도의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좀 성찰하는 입장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의 일정이 여야 간의 전략으로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국회문화를 빨리 만드는 데 우리가 좀 더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외교부장관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겠냐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게 현실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다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재개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화에 대한 의지가 양쪽에 아직 있는 상황에서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 역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실험장이 외국 언론인들이 보는 가운데서 폭파가 이루어졌습니니다만 그게 완전한 폐기인지 국제 전문가들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하지만 그런 핵실험장 폭파가 있었던 것도 하나의 사실이고요.

지금 동창리 관련해서 많은 동향을 주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정부로서도 많이 우려가 된다 그리고 북측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하는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놓고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중요한 게 북·미 간의 대화가 중단된 이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얼마나 빠른 시일 안에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까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 재개에 대한 의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 측은 폼페이오 장관이 명확히 그 의지를 밝혔고요. 북한의 입장도 최선희 부상의 회견을 분석을 해 보면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미국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파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노이 이후에 북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최설희 부상의 공개발언이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인 어떤 파악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면 장관께서는 북·미 간의 협상 재개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망이 될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재개 전망을 높게 보느냐, 낮게 보느냐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망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려울수록 중요한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큰 그림, 큰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과 또 북한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하고 중재하는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책임 있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께서 아마 이게 마지막 우리 상임위원회 출석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요하고 힘든 때 어려운 일을 맡아서 큰 역할 하신 것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 남북 화해·협력 또 평화정착에 역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감사합니다.

○원혜영 위원 지금 하노이 회담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큰 브레이크가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우려와 또 그런 전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재 완화가 전제되는 것 거의 대부분이 모든 경제교류와 협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경제적인 것 그리고 제재 완화의 틀에 갇히지 않는 그러한 문화의 교류 협력에 대한 접근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졌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5년이니까 벌써 4년 전부터 제가 꾸준히 다각적으로 제시해 온 게 철원 철책선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태봉국의 도성을 남북 역사학자가 공동으로 발굴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를 위한 지뢰 제거작

업 또 성터 발굴·조사와 복구작업 그리고 성터의 한 부분을 가로지르고 가는 경원선을 복구하는 작업 그리고 당연히 그 주위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이 작업이야말로 역사성과 환경과 그리고 또 철도 복원을 통해서 산업과 교통과 관광이 이어지는 이러한 것도 종합적으로 보여 줄 수 있고 무엇보다 이게 현장성이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성 만월대 고려왕궁 발굴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는 소식을 전해들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상태대로…… 우리 시민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관광객들도 와서 철원에서 ‘아, 저 현장이 1100년 전 태봉국의 도성을 남북 역사학자가 공동 발굴한 자리다’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관계의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상징적이고 우선 제약이 제일 적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하고 아주 잘 만들어진 실천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임했다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 우선 드론을 활용해서 위성 라이다 측량으로 지표면에 돌출된 고분 등의 문화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지형 측량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 남북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텐데 북한과 이 문제를 협의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북한하고 아직 구체적인 협의·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지만 DMZ 내에 있는 태봉국 도성을 저희가 발굴하고 복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미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의 태봉국 도성을 발굴·복원 하는 것은 DMZ 평화적 이용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남북한 간의 여러 가지 상황을 풀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쪽에는 이전 정부에서 DMZ 평화공원으로 해서 이미 추진됐던, 협력기금도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현 단계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두 분 장관님께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에 따른 제재 해제라는 빅딜을 내세웠고 북한은 영변 폐기와 그에 따른 안보리 제재 11개 가운데에서 5개를 해제해 달라는 소위 스몰딜로 협상을 했지만 결국 노딜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결국 빈손 회담으로 끝났는데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두 분 장관님께서서는 새로운, 뉴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새로운 해법, 북핵 해법 이 뉴딜과 관련해서 외교부장관께서 생각하시는 구상이 있다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논의·합의를 거쳐서 그 이행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해 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은 우리나라 미국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논의, 당장의 포괄적인 합의는 아니더라도 포괄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모든 분야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응조치에 대해서는 제재 문제를 포함해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그 밖에 종전선언 이런 여러 가지 상응조치가 또 한편에 나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핵화에 있어서 여러 요소 또 상응조치에서의 여러 요소를 그렇지 않아도 미 측과 상당히 긴밀히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결국은 하노이에서 미 측의 협상 목표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미국과의 공조 내용을 기본으로 또 하노이 결과를 충분히 분석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결국은 미·북 사이에서 합의를 도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유철 위원** 아니,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지

금 뭐 미국의 생각, 뭐 일반적인 얘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 지금 도저히 북·미 간에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니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포괄적인 논의 또 합의를 통해서 또 포괄적인 상응조치 논의 이렇게 큰 틀의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유철 위원** 결국 빅딜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외교부장관 강경화** 큰 그림…… 뭐 빅딜, 스몰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보다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포괄적인 접근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과거에 북한과의 핵 논의를 보면 제네바 합의 때는 플루토늄을 동결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 합의를 이행하다가 농축시설이 발견되면서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느 한 부분만 놓고 합의를 하고 이행을 하다 보면, 부분 부분으로 나가다 보면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다는 얘깁니다.

○**원유철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확실한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조명균**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북한과 미국 간에 비핵화를 위해서 협의해 온 것 자체가 현 단계에서 꼭 새로운 것으로 대체돼야 될 만큼의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해 온 것들 중에 분명히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보완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또 새로운 요소를 거기에 더 첨가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잘못됐고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잘라서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면밀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까지 협의해 온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새로운 요소를 좀더 더해서 앞으로 북·미 간에

협상을 재개하고 풀어 나가도록 추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아니, 두 차례에 걸친 트럼프·김정은 두 정상 간의 회담이 사실상 아무 합의를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통일부장관님께서 현장에 많이 계셨고 또 북한과 미국하고도 직접 접촉하고 간접적으로 많은 접촉을 하셨는데 그런 새로운 해법이 지금 나와야 될 시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건데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뭐 의미가 있었다고 하시는 것은, 지금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방식, 뉴딜 방식이 나와야 된단 얘기에요. 그러한 것을 구상하신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잘 될 텐데 지금 이렇게 못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건데 답변하시는 것 보면 충분치가 못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원유철 위원 오늘인가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라고 나왔는데 그것 장관님 아시는 개념입니까, 청와대에서 발표한 것?

○통일부장관 조명균 어제 발표된 것 저도 그 정도 들었습니다.

○원유철 위원 그리고 통일부장관님이 전혀…… 지금 저한테 듣고 그 정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의 현주소입니다, 외교부장관의 현주소이고. 적어도 문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는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또 NSC의 멤버로서 외교장관, 통일부장관 두 분이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의견을 내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고민 안 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도 발표한 굿 이너프 딜이라는 새로운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장관님 지금 이제 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제대로 되겠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언론보도를 들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 북·미 2차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앞으로 이것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 통일부 차원에서는 남북관계 측면에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계속해서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아무튼 외교부장관님이나 통일부장관님이나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고 또 이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북한의 입장, 미국의 입장을 더 가깝게 현장에서 많이 아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해서 외교부장관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한국 일본 등 동맹국 주둔비+50% 분담해야 된다고 14일 날 워싱턴포스트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것 사실이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보도는 그렇게 있었습니다만 아까……

○원유철 위원 그 이후에 패트릭 새너핸 미국 방장관 대행이 미 상원 예산 청문회에서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원유철 위원 국방장관 대행의 말이 맞는 거지요, 공식 입장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공개적으로 말한 국방장관 대리의 말이 공식적인 발언이고요,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어떤 입장을 전달해 온 바 없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유철 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해 온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원유철 위원 확인 안 했습니까, 우리 정부가?

○외교부장관 강경화 우리한테 전달해 온 게 없습니다.

○원유철 위원 우리 정부가 확인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둔비+50%라고 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했고 국방장관 대행은 그것 사실과 다르다고 했을 때 우리 정부가 그것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확인하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물론 공관을 통해서 그 발언의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정의 향후 협상 관련해서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입장 통보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유철 위원 이것 심각한 사안인데 그것을 확인 안 한다는 말입니까? 대통령 얘기하고 지금 미 국방장관 대행의 얘기하고 이 주둔비…… 방위비분담금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것을 확인해야지요, 당연히.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물론 공관을 통해서도 다각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얘기예요?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맞는 겁니까, 미 국방장관 대행 얘기가 맞는 겁니까?

○위원장 윤상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께서 한 말씀도 있고요, 국방장관 대리의 얘기도 있고 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협상과 관련해서 공식 통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 정도 정회하였다가 4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된 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뭐냐 하면 그전에 비건 대표가 하던 얘기들은 액션 투 액션(action to action)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했었는데 그날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확 바꾸어서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으로 해 가지고 일괄 타결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취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깬 것인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 볼 때 하나는 코언 청문회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트위터에다 그런 말을 했지만—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협상하고 있는 실시간에 외신은 그게 빅뉴스였잖아요, 코언

청문회가.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은 주거나 받거나 상당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협상인데 그럴 마음의 여유가 있었겠냐고요. 그게 제일 컸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협상술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 싱가포르 회담 할 때에도, 센토사 회담 할 때도 ‘않겠다’ 하고 딱 켜어요. 그러다가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결국은 예정대로 했습니다.

그때도 트럼프에 대해서 연구하는 미국에 있는 분들이 나한테 그랬거든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트럼프 협상술입니다. 그대로 할 겁니다’, 들었다 왔다……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 표현으로 한다면 들었다 왔다 하는 게 트럼프 협상의 전략입니다. 그 양반이 쓰신 책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최고, 가장 어려운 데까지 최고의 목표를 주장을 하다 보면 나중에 비슷하게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실망할 일은 아니고, 저는 지금 이제 일괄타결 협상으로 미국 태도가 바뀐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바뀔 수 있다, 다시 과거처럼 액션 투 액션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어제 정의용 실장이 기자들한테 얘기한 것 있지요? 여차여차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너프(enough), 스펀도 아니고 빅도 아니고 굿 이너프(good enough) 정도로 해서 한두 번 그런 실적을 내고 서로 믿음이 생기면 그다음에 또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 상당히 그럴 법한 얘기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북한도 ‘핵 이고 사느니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 중국은 잘살고 저렇게 좋아졌고 베트남도 좋아졌는데 왜 우리만 이러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미국도 ‘그 핵 귀찮다 그것을 좀 처리, 없애게 하고 적절히 경제적인 교류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다 깔려 있어요. 깔려 있는데, 그런 트럼프 협상술을 우리 정부가 잘 이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가장 중요한 시기가, 대통령과 우리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하노이 회담 깨진 것에 대해서 내가 두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앞의 코언 얘기는 많이들 하는 얘기이고, 또 협상술이다 하는 얘기는 별로 안 하는 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외교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술’이라고 붙여야 될지……

○**이석현 위원** ‘술’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 만나면 ‘그 양반 부동산 장사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도 말하는데 우리는 존중해서 ‘협상술’이라는 말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의 입장은 이게 포괄적인 그림을 갖고 협상을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빅 픽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올 오어 낫싱이라는 입장은 또 아닙니다.

○**이석현 위원** 쪼개서 넣을 수 있는 입장일 것이다 그 뜻이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포괄적인 논의, 그리고 어떤 큰 틀의 합의를 하고 부분에 있어서는 단계적으로 갈 수 있다 하는 얘기이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한 부분만 논의해서 합의를 해서 이행을 한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하지 않겠다는 또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미국이 바라는 핵 리스트라고 하나요, 핵신고 그런 문제는 북·미 간에 어느 정도 몇 가지 이루어져 가지고 신뢰가 형성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에 으르렁거리는 상황에서, 상대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핵이 어디 어디 숨겨져 있습니다’라고 1000군데 2000군데를 얘기를 해 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여기 타격해 주시오’, 상황이 어그러졌을 때 자기네 그것을 다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당장 그렇게 못 할 겁니다.

뭔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서 미국이 무엇을 해주거나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이 되어서 믿음이 갔을 때 그런 핵신고도 하는 것이지, 우선 그것을 불안하게 자꾸 드러내고 싶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불신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국을 많이 설득하고 또 혹시라도 지금 또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회견 비슷한 것을 곧 할 것처럼 보도가 되는데 또 막가는 얘기 안 하게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급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최설희 부상 얘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나서 주기를 바랄 겁니다. 그것은 미국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이러하니 한국이 나서서 중간에서 중재해

주시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대북특사를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안을 포함해서 모든 옵션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그런 어떤 계획이 서 있지는 않습니다.

○**이석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북특사 보다는 우리가 판문점을 열었으니까, 판문점 연락사무소가 열렸으니까 거기서 실무적으로 긴밀하게, 신속하게 의논해서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지금 의기소침해 있는데 ‘답방하라’ ‘답방하라’ 해 봤자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는 판문점으로 가서 지난번처럼 스스럼없이 회담하는 것을, 그것은 여러 이벤트 많이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전략을 상의할 수 있게 하는 게 특사 보내고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현실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계획이나 또는 검토도 하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남북 정상 간에 형성된 신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서로 저렇게 못 믿어 그러니까 그것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남북 화상 상봉 얘기가 나왔지요? 그것 하려면 화상 장비, 캠코더나 촬영장비들이 평양으로 일부가 들어가야 되지요, 그리고 일부는 여기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뭐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거냐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괜찮은 것으로 매듭지어졌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제재위에서 검토를 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석현 위원** 좋다, 그러면 그것을 빨리 하면 어때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구체적인 집행 계획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님께서 말씀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석현 위원** 말씀하시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면제 절차가 다 끝나서 지금 북측하고 실무적으

로 협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외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저는 하노이 회담이 형식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보지만 운영하는 데 따라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기대를 했다가 깨졌는데 그 깨지게 된 원인과 이유를 전부 다 파악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이든 미·북이든 제대로 파악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게 빅딜에 이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하신 그 분석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저는 잘못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최악의 상황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저는 그냥 국민의 입장으로, 보도만 보기 때문에 국민 된 입장에서 봤을 때 남과 북, 한반도가 전체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우선 그동안에 대화를 해 왔었던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현재 끊어져 있고 당연히 이번에 미국의 그러한 협상 결과를 본 유엔에서 대북제재에 동의를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했던 유엔국 산하의 거의 모든 국가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트럼프가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북 간의 대화가 중단된 것에 대한 찬성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우리 한국 또한 사실 그동안에 단계적인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편을 들었기 때문에 미국과 아까 말한 나머지 유엔국 이런 데로부터도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우리 한국은, 북한은 당연히 그래 왔었고 우리는 지금 일본과의 관계도 그리 썩 좋지 않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된 중국 문제도 제대로 풀리지 않았었고 러시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다면 지금 갑자기 우리 남북한은 국제사회에 굉장히 고립되어 있다라고, 한반도 전체가 고립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북·미 대화가 계속 돼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국제사회의 공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대화는 계속 돼야 되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좋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리고 북한은 지금까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상당히 고립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같이 고립되었다는 데에서는 같은 평가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 뒷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려 보겠습니다.

왜 남한도 고립되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남북문제나 또 미·북 문제를, 북핵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오락가락하고 상당히 흥분되고 지나치게 낙관도 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운전석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죽 얘기를 해 오다가 또 이제는 중재자 역할로 나왔습니다. 중재자는 상당히, 잘 알다시피 중매 잘 못 서게 되면 뺨이 세 대고 또 잘 서게 되면 뒤통이 어찌고 하는데, 술이 석 잔이고 한하는데 중재자 역할을 잘 못 하면 뺨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그 결과가 좋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책임을 내려놓고 이번에는 살짝 책임을 빼려고 하는 촉진자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국제사회도 그렇고 북한으로부터도 그렇고 당사자가 왜 자꾸 오락가락하면서 그렇게 받을 빼려고 하고 그렇게 변신을 하느냐라고 하는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아까 왜 ‘우리도 고립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에게 말하자면 단계적인 협상을 권유하고 권고하고 얘기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 쪽에 많은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에 남한이 북한과 함께 중국, 러시아하고 한편인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흐름과 또 여러 가지 동향이

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신을 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국제사회에 상당히 남한과 북한의 신뢰에 또 심지어는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얘기 듣다가 우리가 지금 이상한 처지가 됐다라고 하는 오해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간의 신뢰, 남북 간의 신뢰 위기, 미·북 간의 신뢰 위기, 한미 간의 신뢰 위기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한반도가 상당히 신뢰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결과가 북한이고 남한이고 또 자체적인 정치 위기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그러한 수령론을 펼치고 있지 않지만 일단 북한 사회에서는 김일성이든 김정은이든 또는 말하자면 그 3대 전체가 다 수령론, 수령론의 가장 핵심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무오류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은 전부 다 위원장이 하는 것은 오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 왔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더더구나 출발하기 전에 북한 내에 굉장히 많은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결국에 오류가 발생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내부의, 강온파는 말할 것도 없고 민심 이반까지 굉장히 저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만약에 경제 제재가 더 강화돼 가지고 제2의 경제 고난의 시기까지 접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내부에서 민심을 수습하는 데 공산당원들은 당원들대로, 군부 간부들은 간부들대로, 민심은 민심대로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가 되고 핵을 계속 개발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결론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적인 위기라고 봅니다.

남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래 계속해서 어쨌든 남북문제에 굉장한 진전이 있었고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드라마틱한 장면들, 세 번의 정상회담과 또 미·북 간의 두 번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어마어마한, 남북 간에 대단히 드라마틱한 장면을 보여 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동안의 국정운영은 전부 남북한을 축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일시적이든, 앞으로 개선되면 다행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큰 축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등뼈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손과 발이 튼튼하더라도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남북 간의 정치적인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분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대단히 위험스럽고 간단치 않은 하노이 회담의 후유증이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 감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 왔듯이 대화로 풀고 또 외교로 풀고 그리고 더 많은 접촉과 교류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고, 더더구나 역대 어느 정권도 하지 못했었던 북한과의 물밑 대화나 아까 정상회담이나 또는 마련해 오고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라든가 또 핫라인까지 다 갖추고 있는 이 정권이 북한과 정말 제대로 된 통화를 하고 이번에 확인된 국제사회의 여론이 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북한에 전달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점에 다가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남북경협같이, 사실은 북한은 석탄 채굴이라든가 수산업이라든가 또는 인력 송출이라든가 이런 데가 보통 굉장히, 거의 10억 불 이상의 그런 거지 남북경협은 해 봤자 한 7000만 불이나 1억 불 정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경협이 다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국제사회에 오히려 더 불신을 사게 하는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빨리 하고 많이 했는데 두 장관님 혹시 제 말씀 듣고 소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외교통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한반도의 이런 평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이 정국을 만든 데는 기본적으로 한미 간의 튼튼한 공조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중국, 러시아 또 일본 중요한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이도훈 본부장은 러시아의 평가를 듣기 위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갔습니다만 기본은 한미 공조입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공조를 계속 이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다 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국제사회에 많이 출장을 다니고 올해도 여러, 대통령을 모시고 지난주에는 동남아시아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이전에 여러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고립되었다는 느낌은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노이 전입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평화의 프로세스로 상황을 만들어 온 점에 대해서 큰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국제사회는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이정현 위원 잠깐만요. 통일부장관님 말씀 조금 들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예, 하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금 상황을 풀어 가기 위해서 남북한 간에 보다 더 많은 접촉, 대화, 교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주신 데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남북정협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지혜롭게 저희가 잘 정책에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이수혁 위원입니다.

우선 조명균 통일부장관님께서 이번에 사임을 하게 된 것을 저로서는 심심한 위로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년 가까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질문이 대부분 하노이 미·북 정상 회담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들으면서 또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사실 제가 내일 모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질문이나 답변에 모호한 것이 있거나 하기 때문에 조금, 아까 장관님께서 ‘클래리파이(clarify)’라는 말을 썼는데 저도 좀 클래리파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북·미 회담이 온통 제재완화 문제에 집중된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다’, ‘해라’, 미국은 ‘그 정도로 못 하겠다’ ‘영변 핵시설 폐기만 가지고는 못 하겠다’ 거기에 집중돼 있던 것 아닌가…… 결국은 두 가지의 충돌이지요. ‘영변 핵 폐기만 가지고는 안 된다. 로드맵 합의해라. 궁극적으로는 핵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하는 데 합의를 해라’, 그 전반적인 큰 틀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포괄적 합의를 해라 그다음에 폐기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하자. 그 틀을 합의하라는 데 북한은 ‘아니, 지금은 나는 영변 핵시설 폐기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겠어. 왜? 지금 제재가 급한데 완전한 핵 폐기까지 우리 제재 해제 기다리라고? 그건 못 하겠다. 그러니까 영변 시설을 우선 폐기할 테니 제재 해제 약속을 해라. 그런데 그 제재 해제도 전부 하는 게 아니라 최근 5개, 2016년과 17년의 5개의 제재 해제해라’, 그것도 전면적으로 5개를 다 무효화하는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 민생과, 민수라고 그랬나요? 그 부분, 그걸 일부 해제라고 북한은 표현했어요. 5개도 전부가 아니라 군수 분야는 빼고 민생 부분만 빼달라.

그런데 미국은 ‘아니, 이것 사실상 전면 해제다. 민수 부분만, 민생 부분만 뺀다는 건 의미가 없다. 군수 분야는 별로 있지도 않고 5개의 결의안은 전부 다 민생 문제다. 그걸 빼라고 하면 제재 다 해제하라는 전면 해제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것 가지고 서로, 폼페이오하고 비건까지 가세해 가지고 하고 또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리용호와 최설희가 ‘아니다, 미국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건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통역을 거치면서 얘기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외교부가 파악한 바는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온통 제재 해제 문제하고 영변 핵실험에만 집중해서 한 것인지, 다른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논쟁이, 큰 충돌이 없어서 그냥 설명을 안 한 것인지 그 비중들, 중점 논의된 비중들을 좀 설명해 주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평가하신 그 부분이 큰 틀에서는 그런 평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재 완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 영변 시설 폐기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던 걸로 미 추과의 소통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뒤에 많이 들었습니다만 미국이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저희가 발표한다는 것은 향후 양측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 좀 조심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수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분여밖에 시간이 안 남았네요. 벌써 5분이 지나갔단 말이네요.

그다음에 아까 장관님 말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할 수 있다’, 일부 제재 문제의 심각성을, 제재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 마나 한 얘기 아니겠어요?

완전한 비핵화를 하면, 그때나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해 주겠다 하면 그 단계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게 단계별로 하자고 하면서 단계별 제재 완화를 하지 않고 다 끝나야, 단계별로 해서 북한의 조치가 다 끝나야 그때 완전한 제재를 해제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단계별로 제재 완화도 해 가는데 중국적으로 완전한 제재 해제는 끝나야 다 끝나는 것이오 그런 의미겠지요?

단계별로 제재 완화는 안 하겠다 하는 미국의 입장이 그런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완전한 비핵화라는 게 목표이기도 하지만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수혁 위원 아니, 제 질문은…… 완전한 비핵화예요? 완전한 제재 해제를 하겠다 하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미국 입장이 단계별 아닙니까? 지금 비건이 그동안 쪽……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행에 있어서는……

○이수혁 위원 그런데 이행에 있어서 상응조치로 제재조치도 단계별로 완화해 가는 절차는 미국은 생각하지 않겠다 하고 이번에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까? 단계별 제재완화 조치가, 미국 안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까? 이번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건 죽여 버렸습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단계별 상응조치에 제재완화도 포함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비건한테 그렇게 들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린 겁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혁 위원 단계별 상응조치로 제재완화도 포함돼 있는 걸로 이해하고 계시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좀, 완전한 제재 해제는 다 끝나야 해 준다고 할 때에는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여기 자료에……

제가 한 1분 정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의 결과 평가에 기본 입장이……

1분만 더 주십시오.

미 측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 그런데 이걸 비건이 일주일 전에, 3월 21일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한 것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써 놓은 게 아니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이걸 보고 쓴 거예요, 일주일 전에 백그라운드 브리핑 한 걸.

실제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한 것인지, 그건 좀 밝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의 목표치는 그러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아니, 목표치가 아니라 실제 기본 입장으로 해서, 현안보고인데 협상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지금 중요한 거지 북한이, 미국이 들고 나간 입장을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비건의 연설문에 다 나와 있잖아요, 스탠퍼드 연설문에. 그런데 스탠퍼드 연설문하고 달라졌느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미국 입장이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한 건지 제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주일 전에 한 백그라운드 브리핑 그대로 번역만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말씀드렸듯이 북한하고, 그러니까 실무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지만 결국 미 측도 정상이 마주 앉아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있다 했는데 정상이 마주 앉았을 때 결국은 제재 완화, 영변 핵폐기 문제로 논의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쓰셨으니까 자료가 결과를 반영하지는 않은 것이다. 아까 읽으신 14페이지를 보시면 기본 입장은 그렇게 나왔어도, 여기서의 기본 입장은 정상회담 나가기 전의 기본 입장이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주고받을 때의 기본 입장이 뭐였느냐 그것을 여기다가 쓰셨기를 바라는데 일주일 전의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그냥 번역해서 갖다 댔으니 실제 정말 이런 토의를, 세 가지를 한 것인지 지금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따가……

○위원장 윤상현 장관님, 한번 알아보시지요. 그래서 추후에 말씀 주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다시 한번 검토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검토해 보시고 다시 말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강경화 장관님, 이번의 하노이 미·북 회담이 결렬로 끝났는데, 아까 장관께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서로 상호 입장을 명확히 알게 된 것 또 신뢰관계를 재확인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상호 입장을 보다 명확히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비핵화를 생각하는 개념이 서로 달랐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라는 말입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좀 물어봅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양측이 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명확해졌다는 면에서, 앞으로의 추가 협상에 있어서 뭐가 쟁점이 될지 보다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유기준 위원 조금 더 말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완전히 총체적인 상태의 북핵 폐기를 원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런 것보다는, 비핵화에 대한 개념도 다른데다가 한반도에서 미군 전술핵을 포함한 북한에 대한 위협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일 테고, 두 번째는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영변에 있는 핵시설 정도를 더 하는 것 그 정도만 생각했는데 미국은 정찰위성을 통해서, 정찰비행을 통해서 그것 말고도 다른 핵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

아내고 제시를 해서 당황해서 그 부분은 철거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또 거기다가 북한은 더 나아가서 유엔 제재 한 5개 정도, 북한의 국민 생활에 관련되는 5개 정도 제재를 요구했는데 미국이 못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결렬이 된 것 아니에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하자면.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큰 틀에서는 그런 평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작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첫 번째 미·북 회담이 있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그때 비핵화에 대해서 서로 개념이 달랐다는 것을 왜 확인을 못 했지요? 그때 네 가지 합의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합의사항이 비핵화 아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른 것 아닙니까? 확인이 된 거지요, 이번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가는 방식에 있어서 이견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유기준 위원 생각이 다른 건 확인이 된 겁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비핵화의 과정에 있어야 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안보리결의상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준 위원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북핵 폐기에다가 아주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고, 북한은 그것도 들어가겠지만 많은 것이 포함돼 있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걸 하겠다고 생각하는 게 비핵화니까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동상이몽인 상태로 만나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북한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북핵 폐기의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결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도래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의사가 있다, 없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긴 과정에서 봤을 때 좀……

○유기준 위원 대통령이 올해 초에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나라에서 말하는 비핵화가 같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대통령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조명균 장관께서도 그때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가 개념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나오셔서 가지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께서 김 위원장과의 여러 번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은 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에도 대통령이 NSC에 가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사업을 더 추진하는 쪽으로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남북 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유기준 위원** 경제협력사업, 그러니까 그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인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고 하니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그다음 날 성명을 뭐라고 발표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비건 대표가 기자 질문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기준 위원** ‘제재 면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유엔 안보리결의안 2094호는 대량 현금을 북한에 주는 것을 금지시키고 또 2375호는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제재를 면제해야만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건데 그 제재 면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내용은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엇박자를 내면서 ‘나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공조하고는 전혀 먼……

이번의 유엔 패널보고서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기준 위원** 거기에 보면……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에 갖다 준 정제유 거기에 대해서 대북제재결의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일단 보고서에는 우리가 제공한 정보가 실려 있고요. 우리가 개성공단 사무소 운영을 위해서 쓴 정제유가 제재 위반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은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유기준 위원** 돼 있습니다. 잘못 보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조명균 통일부장관님이나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작년 8월 21일 날 외통위 회의에 나와서 ‘대북제재에 기본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통일부장관이 말씀하셨고, 외교부장관은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다진다는 설명을 미국 측에 충분히 하고 있고 미국도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의 패널 보고서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정제유를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갖다 놓고 그것을 사무소 유지를 위해 썼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현재의 소유—포제션(possession)—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테리토리(territory)—영토—기준으로 판단해서 이것 위반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패널보고서에 보면.

안 읽어 보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자세히는 읽어 보지 않았지만 ‘위반이다’ 하는 명확한 표현은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기준 위원** 장관께서 그것 확인 한번 좀 해보시고, 지금 여기 영문본도 있고 한글 번역본도 있는데……

○**위원장 윤상현**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유기준 위원** 거기 보면 위반이라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구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소위 여러 가지 제재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과 또 국제사회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작년 10월에 대통령이 ASEM 정상회담에 가서 3M 수반으로부터—마크롱 대통령, 메이·메르켈 수장으로부터—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북한의 제재 완화를 좀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이 전제가 돼야 된다,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받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사회

에서 하는 것과 우리 정부가 하는 게 너무나 거
리 차이가 나는 것을, 아마 강경화 장관 느끼지
않습니까? ASEM 회의 때 가 보셨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대통령 모시고 순방
다녀왔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때 그런 말씀 들을 때 옆에 계
시지 않았습니까? 메르켈, 메이, 마크롱 대통령
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할 때.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
은 비핵화가 진행이 된다는 전제하에 제재 문제
를 말씀하셨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니까 다른 정상들은 북한의
행동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
습니까? 메이 총리는 대답을 아예 안 했고 마크
롱과 메르켈 총리는 그에 대해서, 메이 총리는
답변을 아예 안 했고 메르켈이나 마크롱 대통령
은 그에 대해서 북한의 행동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저는 통일부장관께 좀 여쭙겠습
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인영 위원 장관께서 보시기에 지금 북·미
협상이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지속되고 있는 겁
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속되는 과정 중에 있습
니다.

○이인영 위원 이게 축구 경기로 이야기하면 경
기가 끝난 건지 아니면 연장전이 남아 있는 건
지, 이것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응
방향이 또 대응 준비가 달라지는 건 아실 테고
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하여튼 계속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그런 걸 위한 협상의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최설희 부상이
나 불턴 이야기를 보면 1차전이 종료한 것과 같

은 징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실
무자 간의 어떤 신뢰구조 이런 것들이 금이 가고
있고 또 그동안에 북·미 간에 협상했던 기초,
우리가 설계했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이
런 부분들을 벗어나서 일괄타결 이런 부분들의
기조들이 등장하고 그 내부에는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 이런 것들이 다시 깔려 오는 이런 것들
이란 말이에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종료된 것 같
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의 양 정상 간의 어떤 신뢰구조 이런 것들을 보
면 연장전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저
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후자에
근거해서 또 희망적인 기대 이런 걸 가지고 향후
에 북미 간의 협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재
한다거나 아니면 한반도 평화구조를 확장해 나가
고 제재완화 이런 걸 통해서 경제협력의 국면 이
런 것들을 열어 나가고자 할 텐데 어쨌든 양 정
상의 신뢰가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의 이 협상판
을 통째로 부정하거나 깨려는, 옹으려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지만 1차전이
종료, 경기가 끝난 건지 아니면 연장전이 남아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심도 깊게 검
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양쪽
실무자 간에 오고 가는 내용들은 저희가 좀 우려
스러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
해야 될 부분이 더 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같은 협상장
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협상
의 한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서 서로가 양쪽 주장을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근거 없는 희망이
나 낙관론에만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더라도 또
반대로 저희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해서 그쪽에 대책을 맞춰 나가는 것도 마
찬가지로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저는 어쨌든 1차 경기가
끝났으면 새로운 선수 보강도 하고 새로운 축구
전술·전략 이런 것들도 개발하고 이러면서 2차
전을 준비하는 이런 걸로 가지만 연장전이 남아
있으면 부분적으로 선수 교체하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임하잖아요, 축구 감독이.

대체로 연장전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우리가 우

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중재자·촉진자·당사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임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인 점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저도 물론 후자 쪽에 더 많은 판단은 합니다만 그런 점까지 다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념하면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면 베트남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에서는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유예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결렬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상황을 보면. 일단은 결렬됐지만 그 결렬이 ‘이번 경기는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저는 결렬의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정상 간에 판을 깰 이유가 없지요, 실제로. 정상 간의 신뢰가 또 신중함이 지금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건설이 급하고 이번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체제 문제를 풀어 내는 게 중요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적 요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 대통령선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판을 근본적으로 결렬시킬 그런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또 시간이 서로에게 조금씩,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는 남아 있다는 거니까 결렬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과정이나 아니면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하셨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동창리 동향 같은 것이 베트남 협상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긴장이 회귀되는 쪽으로 파악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일반적인 이유들이 있는 겁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말씀 주신 대로 관계부처에서 이미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난해 말부터 동창리를 북한이 다시 복원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북한이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상당 수준으로 복원을 한 상태가

있어서 그것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게 긴장으로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우선 시설이 복구되는 것과 실험이 재개되는 것은 수준이 다른 문제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실험이 재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국면을 잘 관리하는 이런 것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최근에 실무자들 또 혹은 실무 차원의 창구들이 조금씩 격해지고 강경해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이 문제를 잘못 관리하면 긴장으로 흐름 위험성도 있으니까 그 점은 우리가 잘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보면 북이 선택할 레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핵시설, 핵무기 그다음에 핵물질 이런 걸 가지고서 북·미 간의 협상에 임하고 거기서 예컨대 제재완화라는 미국의 어떤 상응조치 이런 것들을 유도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정해 볼 수 있는 중국과의 경제협력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 이런 데서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추가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우선 지금 현재 대북제재 상황으로 볼 때 또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을 감안할 때 현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관련된 조치 없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북한 간에 경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직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북한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북이 중국 쪽으로 접촉을 강화하거나 러시아 쪽과의 접촉도, 협력도 확대해 나가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어떤 동북아 전략 이런 데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북이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레버리지를 확 이동시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후에 2, 3년 지나면 미국 쪽에서 국면이 바뀌었을 때 다시 북하고 협상을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지요. 기회를 낭비할 수 있다

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컨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우리가 북쪽을 향해서 쓸 수 있는 몇 가지 카드들을 지금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인도적 지원도 그런 것일 수 있고 그다음에 민간 차원의 교류를 신중하게 접근했던 부분들은 좀 더 확장해서 허용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북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의 노하우, 지식 이런 것들을 전수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유엔 제재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북에 쓸 수 있는 몇 가지 카드들이거든요. 지금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그런 방안을 찾아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방안들은 저희가 시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석 위원** 외교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양석 위원** 아까 답변을 통해서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북·미 정상회담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정양석 위원** 북·미 정상회담이 서명에 이르지 못할 것 같다고 파악한 것을 우리 정부가 파악한 것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에게 보고가 바로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제가 인지된 시점에서 바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것은 미국하교의 관계도 있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정양석 위원** 잘 모르시는 게 아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아닙니다.

○**정양석 위원** 그러면 왜 그런 답변을 했어요?

여당에 와서 미 측이 북에 요구한 플러스알파가 정확하게 뭘지 모르겠다, 또 이도훈 본부장은 5일 뒤에 미국 가서 설명을 청취하고 강 장관께서도 한반도본부장이 갔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양석 위원** 좋아요. 말할 수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장관은 대통령께 보고를 하신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하셨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상황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미 측으로부터……

○**정양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예측하셨어요, 못 하셨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결과를……

○**정양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하신 거예요, 흐름들을?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보고했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러면 왜 그날, 우리 야당도 마찬가지로 전부 텔레비전 앞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만 왜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30분 전까지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적어도 모든 국민들과 국회는, 청와대도 이 순간까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 줬어요.

저는 우리가 중재자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외교부는 적어도 북·미 정상회담의 예측을 잘못 했다고 한다면 나는 이것은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어요. 도대체 그러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도 모른 채하신 것인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왜 NSC를, 만약에 정말 상황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날 저녁에 NSC를 소집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를 해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일본 측 대사관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만찬 직후에 북·미 회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는데 한국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다음날 소위 결렬 발표 직전의 청와대 브리핑이 낙관적이어서 놀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외교부가 이런 예측을 못 했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나는 이런 부분에서 적어도 외교부는 국민 앞에, 대통령 앞에 ‘미안합니다’ 하고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유감

표명도 없고 오늘 업무보고에도 북·미 회담 분석을 남의 이야기처럼 하고 있어요. 늘 그래 왔고 또 이게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국회에 와서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 유감스럽다라는 말 표명할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하노이의 결과가 없었던 데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건 맞습니다만……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리고 미 측 실무진의 입장에서……

○정양석 위원 적어도 그러면……

○외교부장관 강경화 결국 정상회담의 결과는 정상들이 만나 봐야 된다는……

○정양석 위원 그러면 적어도 발표 당일 날 청와대가 그런 모습은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답변 하고 계세요?

또 묻겠습니다.

문정인 특보가 북·미 회담의 실패를 나경원 대표가 미국을 가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만나고 그래서 반대 입장을 전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문정인 특보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문정인 특보는 일본의 로비세력이 강하게 빅딜을 주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장관께서도 문정인 특보의 이런 북·미 회담 실패, 자유한국당이 개입하고 또 일본의 로비가 있었다고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특보가 하신 말이 우리 정부의 말은 아니고……

○정양석 위원 의견은 아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가셨어요. 김정남 살해 용의자인 인도네시아 사람이 석방됐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끈질긴 외교적 로비를 통해서 석방을 이뤄 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뭐했습니까? 우리는 그냥 대통령도 아무 말씀도 없었고, 적어도 우리 외교부는 무슨 노력을 안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교부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양석 위원 노력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소통을 통해서 협의를 했

습니다.

○정양석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치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조치라는 게 타국의 사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양석 위원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독살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모른 채하거나 가만있는 것이 우리 외교 자세입니까?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방문에 대해서도 왜 나가셨는지 또 외교적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이 시기에 가시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느닷없이 대통령과 총리 간의 투톱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통상적인 대통령의 외교업무를 총리가 나눠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리의 위상을 격상시키기 위한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잘 모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동남아 순방은 상대국과 오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 일정이었고요. 투톱 외교는 우리 정상외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초청도 많고 오시겠다는 분도 많기 때문에……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통령과 총리께서 나눠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정양석 위원 통일부장관, 영전인지 문책인지 인사가 발표됐습니다. 총선 출마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영전으로 보이고……

1분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예.

○정양석 위원 또 후임자에 대한 논란을 보면 앞으로 통일부가 존속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들은 통일부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판에 박힌 이야기 또 별로 진정성 없는 그런 대화들을 나눴다고 생각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오히려 다음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더 관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걸 보고 장관께서는 문책당한 것도 같고 총선 출마설을 보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되세요, 본인의 인사 문제?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썄요……

○정양석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양석 위원 후임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겠습니까만 이렇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북·미 관계도 엉망이 되고 또 국회와의 관계도 엉망으로 만드는 이런 통일부의 인사를 보면서 저희들은 정말 답답한 벽을 느낍니다.

장관,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시고 또 다른 길로 가시는데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만 본인도 소속 위원 자격으로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 여쭙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위원장 윤상현 영변 플러스알파, 알파가 어디는 영변 핵시설 북서쪽에 있는 분강이라는 핵시설 얘기한다고 그러고 어디는 또 그게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핵 신고를 얘기한다…… 도대체 플러스알파가 뭘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언론에 나왔던 그 시설은 아니었다고 하는……

○위원장 윤상현 분강은 아니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지만 많은 시설에 대한 그 내용이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미측을 통해서……

○위원장 윤상현 그러니까 영변 플러스알파라는 게 소위 말해서 영어로 뉴클리어 퍼실리티(nuclear facility) 그 안에 한정된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넘어서 작년 10월 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영변 이상이라고, 비욘드(beyond) 영변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포

괄적인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을 포함하는 걸 얘기…… 하나의 특정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핵화 프로그램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비핵화 프로그램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 신고와 관련해서는 신고부터 하자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신고가 분명히 비핵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하지만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영변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핵 관련 프로그램, 시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위원장 윤상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미리 사전에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충분히……

○위원장 윤상현 그런데 계속 보면 이도훈 본부장께서 4, 5일이 지나도록 플러스알파를 도대체 모르겠다, 워싱턴에 급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한미 간에 전혀 전략적 소통이 안 된다, 또 당시에 존 볼턴이 2월 23일 날 오려고 했다가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실장이 빨리 워싱턴DC에 가야 된다고 보도자료를 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청와대가 백악관의 어떤 전략적 소통이 안 되고 단지 대통령께서 35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밖에 없다 이래서 전략적 소통이 안 된다 계속해서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하노이 직후에 정상 통화 있었고 그다음 날……

○위원장 윤상현 그 전에,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 전에는 현장에서 실무팀과……

○위원장 윤상현 실무팀에?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저희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그런데도 이도훈 본부장이 플러스알파를 제대로 모르겠다라고 하고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4, 5일이 지나서도 모르니까 워싱턴DC에 가겠다라는 그런 걸 보니까 전략 소통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읽혀지고 있거든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회담 전의 상황하고 회담 이후의 상황은 역시 회담 현장에서 어떤 논의가

되었다는 것이 정확히 다 파악이 안 된다 하는 뜻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윤상현** 그리고 장관님 노딜(no deal), 그 당시에 보면 빅딜(big deal)이다, 스몰딜(small deal)이다 하고, 특히 미국 조야나 우리 언론이나 자꾸 스몰딜 할 거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노딜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을 못 했어요. 장관님께서 혹시 검색을 알아챈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는 얘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그런데 장관님께서 아실지 몰라도 2월 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허드슨 연구소의 수석연구위원 토드 린드버그라고 있습니다. 토드 린드버그가 2월 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 전부 돌렸습니다. 왜 돌린 지 아십니까? 자꾸 ‘스몰딜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깐 ‘아니다. 우리는 스몰딜이 아니라 라이트딜(right deal)을 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 기사를, 그 칼럼을 전부 돌렸어요.

그 칼럼 내용이 뭐냐? ‘FFVD 반드시 한다. 그리고 잘못됐을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캐럿(carrot)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스틱(stick)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라이트딜을 할 거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어느 현장에 무슨 모임에 가서는 계속 ‘라이트딜을 할 거다. 노 러쉬(no rush)다’ 한 여섯 차례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나 우리 외교부가 제대로 캐치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 거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외교부로서는 긴밀한 소통 공조를 위해서 최대한의 여러 채널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완전했다 또 완벽했다고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이번에 여러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두 분 장관님께서 김정은 위원장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아직도 확고하다고 느끼십니까?

외교부장관님, 확고하다고 느끼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의지를 명시적으로 그렇게 여러 번 공약을 했습니다. 명시적인 공약에 대해서……

○**위원장 윤상현**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토크 이즈 치프(talk is cheap) ‘말하는 건 쉽다’ ‘행동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실질적 행동을 한 게 뭔가? 작년 5월 23 일인가요?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쇼,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도 안 내려 놓고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건지, 핵자산이 뭔지도 아직 얘기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까지 핵물질이나 예를 들어서 핵무기, 미사일 기지를 계속해서 가동 중이다.

또 이번에 영변 핵시설 그것만 두고, 그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의 30%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주요 제재, 북한에 대한 제재 90% 이상을 해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아직도 확고하다, 두 분 장관님 느끼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공개적으로 밝힌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견인해 내는 게 협상의 어떤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게 북한 핵 프로그램의 근간이고 중요한 부분임은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변 핵폐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논의를 하자 그리고 지금 영변 핵만으로는 북측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최근에 북한 외무성 최선희 부상이 ‘한국은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다’,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작년 4월 달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하였다’ 거기서부터 스타트했으면, 오히려 완전한 비핵화를 대통령께서 처음 말씀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나 특사를 통해서 완전한 비핵화가 뭘 얘기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는 협상의 스타트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장관님께서 북한에 특사 파견을 하든 빨리 판문점 회담을 통해서 두 분이 정상회담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옵션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장관님들은 잠깐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윤상현** 휴식요? 아까 하셨는데……

○**추미애 위원** 괜찮으시겠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하셨습니다.

○**추미애 위원** 핵과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제재는 응당 유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징벌적 제재는 우리도 주장을 완화를 하라고 해야지만 대화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구분을 잘 못 한다는 이유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자유한국당 어느 위원님이신가요, 금강산 관광, 원래 제재는 징벌적이지요. 박왕자 사건 피살 계기인 거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일단 그렇게……

○**추미애 위원** 그러면 통일부장관님 답변하셨으니까 이어서……

아까 금강산 관광의 문제가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하겠다면 뭐가 문제냐고 물었을 때 개보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관광 목적의 개보수가 핵과 무슨 직접 관련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관광 목적이라는 합나다만 어쨌든 거기에……

○**추미애 위원**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관광하고 있어요, 지금.

○**통일부장관 조명균** 거기 우리 시설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자재, 장비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미애 위원** 그러니까 문짝 고치고 수도 고장 난 것 고치고 침대 새로 고치고 들여놓고 하는 것들이 핵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런 걸 적극적으로 자꾸 설명을 해야지 된다는 거지요.

아까 카메라 장비, 이산가족 상봉하는 데 그것도 물어봐야 된다 그랬더니 면제받았다 하는데 그런 적극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 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추미애 위원** 그다음에 원래 경제 제재를 하는 목적이 뭐니까? 인민생활을 인질로 해서 국민은 곤궁하고 궁핍하게 방치한 채로, 그것이 물론 인권침해도 되지만 국가가 해야 될 인민생활을 부양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썼다 이런 것 때문에 경제 제재를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또 장관님이 명확하게 핵 관련 제재와 징벌적 제재가 구분은 뚜렷하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일응 맞기도 하고 일응 틀리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대화의 장에 나오기 전에 북한은 이제는 경제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결심하고 협상하러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미국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새로운 관계 개선이라는 제일 첫 번째 항목에 그것을 둔 것 아닙니까? 미국이 인정한 건데 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자꾸 상기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구분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추미애 위원** 제 말씀을 이해하시면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자꾸 가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추미애 위원** 이 자리의 위원님들께서 비핵화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아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너무나 뚜렷해요.

이 자리에서 공개되지 않은 북·미 간의 접촉이 2013년에 트랙2 회담이라고 베를린에서 있었어요. 그곳에서 북·미 간에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는 절차·방법·이행에 관한 겁니다. How to에 대한 겁니다.

대상은, 범위는 뭐냐? 첫 번째, 모든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겠다. 두 번째, 주요 핵시설을 불능화 시키겠다. 세 번째, 마지막 단계에서 완전한 핵폐기를 하겠다예요.

그러면 핵폐기까지 다 하는 입장에서 무슨 대량살상무기를, 생화학무기를 왜 쥐고 있을 겁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는 핵물질 그것이 전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 관리 불능한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제일 우려되고 국제사회가 우려되고 미국도 그것을 무서워하는 거니까 이 회담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스폴딜이나, 빅딜이나 하는 것은 이미 비핵화의 범위와 대상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이미 2013년에 약속을 했던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에게만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를 단절하는 바람에 전달 안 됐다뿐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비건도 실무자로서 열심히 협상을 했던 것이고 그 기초에서 한 번도 어긋난 바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국으로서도 하여튼 공개적으로 표명한 그 의지를 잡고 또 최고지도자가 표명한 그 의지를 잡고 지금까지 대화를 계속 이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 하는 그 의지가 분명히 강합니다.

○추미애 위원 아까 최선희 부상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는 중재자가 더 이상 될 수 없고 플레이어다’ 하는데요. 그러면 최선희 부상의 말을 가지고 우리 대통령의 역량을 깎아내리는 것 자체는 그것은 북한 말을 따라 하는 중북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왜 북한은 북한의 이익에 따라서 대화를 촉구하기도 하고, 우리를 빼놓고 북·미만 직접 접촉 하겠다, 직접 접촉한 바도 있으니까, 지난 정권에서 트랙2 회담처럼. 그런 적도 있는데 왜 최선희 말에 따라서 우리 역량을 우리가 스스로 깎아내립니까?

우리는 종전선언에 있어서는 분명한 당사자예요. 그리고 북·미 회담을 촉진시킨 촉진자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님 말씀처럼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여러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왜 북한의 말을 외신이 인용한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따라 하고…… 외신기자가 ‘한국은 갈라파고스가 됐다’ 이 기사도 도쿄에 있는 도쿄 특파원이예요.

미국과 일본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익을 반영하는 겁니다. 왜 그것을 그대로 따라 해야 됩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외신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추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 위원 박병석 위원입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에 보면 미국의 입장이 강경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비건까지도 그런 입장을 취했고요. 그 이후에 침묵하던 북한이 최선희 부상을 통해서 15일 날 자기의 입장을 강하게 얘기했지요.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 제가 보도를 보니까, 멀베이니 트럼프 비서실장 대행이네요. 아주 잘 정리를 했다고 보여요. ‘2차 회담 결렬은 당시 그 시점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협상은 계속될 수 있고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발언, 보고 내용을 봤습니다.

○박병석 위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를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대화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다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든가 하는 소위 궤도 이탈을 막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 그동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화를 막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맞습니다.

○박병석 위원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근거 없는 낙관론, 희망적 사고도 안 되지만 일부 외신이나 한두 줄에 나라가 흔들리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것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와서 제일 뼈아프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자리에서 2012년부터 강조한 게 있어요.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한 정책이고 우리는 그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

다 하는 것을 누차 얘기했습니다.

전략적 인내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지 않는다면 전략적 인내가 가능하지만 그동안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에 호소를 하든지 읍소를 하든지 강압하든지 매달리든지 해서 북·미 회담을 진행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결과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뭐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주인입니다. 한반도의 주인은 우리예요. 우리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초가 필요하지만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의 국내적 정치에 휘둘려도 안 되고 강대국들의 패권싸움의 카드로 쓰여서도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사자적 촉진자의 역할을 굳건하게 하지 않으면 제2의 전략적 인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요. 나중에 의견 들겠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미국은 ICBM을 고도화시키기 전까지는 한반도의 핵문제가 한반도의 문제, 아시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중국도 한반도의 문제예요. 아시아 정책의 문제예요. 우리는 8000만의 운명과 공동 번영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될 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가 흔들리면, 주도권을 잃으면 또다시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의 손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또 하나는 일부 외신이나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의 전문가 패널을 들어요. 아까 석유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또 하나 영변 원자로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국내 언론들이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월 5일 날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보고한 것과 같은 날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이 밝힌 것이 똑같아요. 뭐냐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쓰겠습니다.

북한 영변의 5MW 원자로를 지난해 말부터 중단돼 재처리시설은 현재 가동 중인 게 없지만 우

라늄 농축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그러면 언론은 왜 이러느냐? 전문가 패널이 나온 것은 11월 달입니다. 이 패널이 보고서 쓸 때는 유엔의 전문가 패널 얘기가 맞지만 한 달 후에 중단이 된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쓰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마치 국민을 속이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잖아요. 왜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해명하고 정정보도도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틀린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 대응을 즉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시기가 다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원장님께서 보고하셨던 것이 정확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석 위원** 아니, 통일부장관도 답변하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일관성 있게 우리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께서 지난번 3·1절 경축사에서 신한반도 체제 구상을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에 외세에 휘둘렸던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의 주도로써 이러한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자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천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 첫 질의에 이어서 방위비 협정 문제에 관해서 질의보다도 대체토론을 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국회 심사 과정, 심사의 결과로서 적어도 다섯 가지의 부대의견을 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미국의 주둔비 전액 또는 주둔과 관련 없는 경비를 지급하는 것은 한미 간의 SOFA 제 5조 ‘미국이 주둔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로 한다’는 SOFA 5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합니다.

둘째는 방위비분담금이 어떤 경우라도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주한미군 특수정보시설에 사용되지 못하

도록 그 집행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군수지원 항목이 사실상의 작전지원비 항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기지운영지원 항목의 추가 신설을 막고 군수지원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 없는 해외 미군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연례적으로 미집행, 이월 등이 발생함으로써 국가재정법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분담금 산정방식을 앞으로 소요충족형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원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런 부대조건을 붙일 것을 제안합니다.

통일부장관님,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천정배 위원** 아쉽게도 북·미 간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습니다. 사실은 저 자신이나 우리의 기대와 예상을 저버리는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번에,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사실은 원래 매우 어려운 과제였는데 저는 ‘이번에는 굉장히 안이하게 판단했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도 좀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실제 회담 이후의 상황이 더 꼬여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저는 우리 정부가 새롭게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외교부장관께서도 보고하셨지만 북·미 간의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 가고 대화의 성과가 나오도록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해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중재자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그 해결책을 창안해서 북·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그것을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방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해 간다. 우리는 단순히 중재자가 아니고 한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 그리고 플레이어다’ 이런 자각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선 자세부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도 열심히 하셨지만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말씀 주신 대로 앞에서 또 역시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우리가 당사자적 촉진자 그런 입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현 상황을 좀 더 풀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다 생각을 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통일부로서는 남북관계에서 그러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의 선순환구조를 저희가 이번 계기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갔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북핵 문제 해결책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포괄적 타결과 단계적 이행인가요? 정확한……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두 분 다, 정확한 표현인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천정배 위원** 표현이 좀 달랐던가요? 포괄적 타결과 단계적 이행.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천정배 위원**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전체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서로 상응하는 조치를 해 가면서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천정배 위원** 그리고 그 로드맵이나 일정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선 우리 정부가 이런 포괄적 타결, 단계적 이행의 이 큰 그림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한테 공개 안 하더라도.

다 공개하라고 할까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다양한 형태로 갖고 있고 또 상황 진전에 따라서는 수정하기도 하고 업데이트하기도 하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지금 말씀하신 포괄적 접근, 단계적 이행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7년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거고 그런 하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북한, 미국과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기우에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그림을 오히려 좀 투명하게, 큰 그림의 구도와 윤곽 정도는 국민적 토론을 거쳐 가면서 공개적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 과정이 지금 아마 민주평통자문회의 같은데, 굉장히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다음에 3·1절이나 이럴 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든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저도 재개를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좀 생똥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좀 느닷없이 시기에 안 맞게 단편적으로 제기한다. 우리가 큰 그림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일환으로서 이런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뭘 하고 한다는 소리를 하고 가야 우리가 주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합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여러 위원님들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이고.

동맹이라고 그러면 ‘정보가 얼마만큼 공유되었느냐. 그리고 정책적인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게 정말 진정한 동맹인지 아닌지 등등을 판단할 수 있는 관건이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에 죽 그 과정을 복기해 보면 과연 미국과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점을 지적했고, 바로 아까 정양석 위원께서 약간 언성을 높이면 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보다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본 기사 중에 보면 일본 외무성에서 자기들은 전날 이 2차 회담의 진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미국 측으로부터 언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30분 전까지 그냥 장미꽃 피는 이야기만 나누는 우리 청와대 대변인, 그

전날 청와대 인사를 보면서 ‘야, 이게 뭔가’…… 이게 정말, 내가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정부에서 하는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하는 이런, 제가 참 난감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좀 보려고, 종편 이런 것을 생전에 잘 안 봤는데 한번 집에서 시간을 가지고 이리저리 보니까, 3·1절 경축사를 하러 나오신 대통령 모습을 제가 보고 눈이 좀 부어 가는 것 같고 얼굴이 편안치 못하다 이랬는데 그 종편의 어떤 기자도 딱 그것을 지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3·1절 경축사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서 또 금강산 말씀을 하시고 개성공단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저게 뭐가 전체적으로 맞는 게 아닌데…… 대통령 말씀이니 믿지 않을 수도 없고 저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랬던 겁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을 보면,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워싱턴에서 했습니까, 강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김재경 위원** 거기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개성, 금강산 포함해서 여러 가지……

○**김재경 위원** 개성, 금강산은 이야기를 꺼내지도 못했었던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논의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시다.

○**김재경 위원** 또 조 장관님 지난번에 우리 당에 와서 보고할 때처럼 무슨 문 잠가 놓은 데 가지고 열어 보려고 하고 그런 또 맥락 없는 답변 하시지 말고.

대통령께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 금강산과 개성공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뭔가 박자가 맞는 논의가 있었느냐 제 질문은 그런 거지요.

어떻습니까?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까? 뒤에 한번 보시고 답변 주셔도 좋고요.

아무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신뢰가 양쪽으로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말 좀 신중하고 많은 생각을 하시게 해서 큰 고민을 하실 수 있도록 조언도 하시고 또 시간도 좀 배려해 주시고.

저는 이번에 순방하고 와 가지고 하루 좀 쉬시면서 정국 구상했다는 그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했어요. 수많은 보고서, 전국에서 올라오는 것, 검찰·경찰 온갖 데서 올라오는 것 밤새워 가면서 노란 줄 그어서 읽으면 뭐합니까? 정말 그 시간에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은 이런 큰 어젠다를 가지고 뒷짐 지고 고민하는 게 대통령이지, 그것 밑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주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 심재권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라는 저는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풀어 감에 있어서 몇 가지 꼭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비핵화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원칙을 꼭 지켜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비핵화가,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처음 조건이, 그게 어떤 족쇄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갈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 점을 꼭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북한의 지도자가 대소 간에 여러 회의에서 그것을 언급했고 구체적으로 아무리 그것이 비핵화에, 우리가 바라는 목표에 미흡하다 할지라도 그런 실천도 보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해 감에 있어서 이번의 하노이 회담이 어떤 결과를 못 가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요구를 했다고 해서 속였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 이걸 아닙니다. 명확히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보고 그 위에서 우리가 논의를 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당당히 우리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제재 완화 문제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냅 백(snap back) 조건이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정한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가 안 이루어진다면, 북한이 속이고 있다면

한시라도 그것을 다시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이런 스냅 백 좋지요. 이란의 경우에서 봤듯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러시아 중국이 반대해도 미국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좀 더 과감히 협의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런 말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14페이지, 15페이지에 우리 외교부가 제시한 대응 방향, 저는 세세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는데 저는 아주 옹기 보고 계신다고 봅니다. 따라서 더 길게 얘기 안 하더라도 이런 원칙에 맞추어서 정말 안정적 상황관리 하고 그리고 북·미 대화가 꺼지지 않도록 추진하고, 또 그런가 하면 국제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전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나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그게 얼마나 가능하냐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인 겁니다. 따라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틈 되는 대로 상대방에 이야기도 하고 국제적인 공감대도 얻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대안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어떤 분이 발표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뉴스만 봐서 밝혀지지 않았습시다라는 누가 했던 간에 청와대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저는 아주 훌륭한 방향 제시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포괄적인 로드맵도 마련하면서 구체적으로 스톱딜 그다음에 정말 충분히 좋은 길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신뢰가 축적되고 이것이 더 큰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의 의견을 강력히 또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예.

○심재권 위원 저는 미국과의 이견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말 우리한테 얼마나 든든하고 훌륭한 동맹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입장이 있고 미국이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불턴 안보보좌관이나 미국의 그레이엄 상원의원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군사적 수단으로 해야 된다, 선제공격 할 수 있다’, 게다가 뭐라고 합니까? ‘전쟁 나면 그것은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일부 미국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을……

미국동맹, 참으로 중요하고 든든하고 훌륭하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가 오히려 미국에게 강력히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해케 하고 그리고 그런 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견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일부 언론에 의해서 무슨 어깃장이라든가 말 같지도 않은 이런 표현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과감히 반론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중재자냐, 촉진자냐, 당사자냐 저는 그런 단어 개념이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이상의 당사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당사자로서 조정해야 될 게 있으면 하고 촉진해야 될 게 있으면 하고 우리 의견으로 강력히 견인해 나가야 될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당당하고 과감하게 또 우리 국민들께 진솔하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셔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점에 대해서 많은 공감을 하고요. 국민들에 대한 소통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 미래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역할이 어떨 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게 또 맞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부르든 간에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개척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임해 왔고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외교부장관님,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온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지난번 3월 7일 날 미세먼지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장관께서는 ‘분명히 중국발 원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정병국 위원 이전의 3월 6일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이라고 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 루캉 대변인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147μg을 넘었지만 최근 이틀간 베이징에는 미세먼지가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강경화 장관의 미세먼지 중국 원인 발언에 대해서 ‘한국 관리들이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전문적인 뒷받침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낸 게 있나요? 외교부의 입장은 뭐예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중국 측의 대변인 얘기에 대한 기자 질문이 있어서 제가 지나가면서 ‘일부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이 사실이다’……

○정병국 위원 일부 원인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외교부에는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이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거기에서 기후변화나 환경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한국 미세먼지 원인에 관한 조사가 있는지, 정보수집을 한 게 있는지 그 내역을 좀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국을 두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외교부가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관이 답변하는 것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중국의 동부지역에 석탄발전소가 무려 300여 개가 몰려 있어요. 거기 북경은 내륙

지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의 영향을 안 미쳐요.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오롯이 전부 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전체 석탄발전 용량의 7배가 되는 464기를 더 늘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동부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될 외교부에서 지금 자료 확보라든가 정보수집을 전혀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대응을 못 하고 있고, 오늘도 중국하고 협력을 한다 뭐 한다라고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국제협력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쭉 찾아봤더니 회의한 번 하면 끝나고 그 뒤에 후속적인 조치가 전혀 없어요.

회의하면, 공동 보조를 함께 맞추기로 하면 미세먼지가 날아갑니까? 없어집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실행이 없어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인접된 공동의 피해를 보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규슈지방이 중국의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아요. 또 태국 같은 경우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런 공동 피해국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세미나를 한다든지 공동조사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여론전을 계속 펴야지요.

대표적으로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한 경우가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가 영국으로부터 이런 부분에서 극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교부에서는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장관께서 가 가지고 협상하고 또 정상 간에 이 문제 제기했다고 해서 미세먼지가 없어지는 것 아니잖아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미세먼지는……

○정병국 위원 아무런 의미 없는 대답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정보도, 자료조사도 한 적이 없어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조사하는 것은 외교부가 조사하는 게 아니고 환경 당국……

○정병국 위원 외교부가 하지 않으면 자료·정보 수집이라도 해 가지고 장관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중국 외교부에서 이런 답변을 하면 바로 즉각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학

적인 근거를 들이대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협상을 할 때에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 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잘 유념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다음에 통일부.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정병국 위원 우리 한국 정부가 탈북단체를 억압한다, 돈으로 북한 인권·탈북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에서 비판하고 있는 이 문제 알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미국 인권보고서에 우리나라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이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탈북민 정착 사업비 지원예산이 지난 5년간 40% 감소한 것은 아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병국 위원 탈북단체 관계자들하고 한번 간담회 해 봤어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통일부장관 조명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정병국 위원 뭐가 사실과 달라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이번 정부 들어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2014년, 15년 오면서부터 연차적으로 다른 용도로 저희가 전환을 하면서 축소되어 온 것입니다.

○정병국 위원 지난번 2017년도에 북한 인권 활동가 18명이 2880만 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원받아서 인권행사에 갔었지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것을 안 해 줬잖아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가 사업예산 성격상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과 다릅니다.

○정병국 위원 뭐가 사실과 달라요? 얘기를 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행사가 4월 말에 개최되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정병국 위원 지원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여하튼 말씀드린 대로 행사는 4월 말입니다.

○**정병국 위원** 4월 말인데…… 그러니까 지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직 어떤 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게?

○**통일부장관 조명균** 사업의 성격상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저희 관계 국장이 가서……

○**정병국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정병국 위원** 저는 남북대화를 주도하는 통일부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아 가면서까지 빌미를 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어떻게 이렇게 어수룩하게 일 처리들을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희가……

○**정병국 위원** 대표적인 게 이런 부분들도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타신 차가 거기에 탁 나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창피합니까?

외교부장관, 이게 우리의 외교 현실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위원장 윤상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원유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을 지렛대로 삼아서 계속 비핵화 협상에 활용하는 애를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고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이 폐쇄된 것도 북한의 핵실험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된 거고 금강산관광이 문을 닫은 것도 박왕자 씨 피격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북한이 원인 제공을 한 책임이 큼니다. 사실 결과해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입장은.

거기에다가 지금 북한이 끊임없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제재로 해서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이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그냥 상식적으로 보기에에도요. 그런데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정부가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 하는 겁니다, 희망고문.

안보리 제재가 풀려야 되고 미국의 대북제재가 풀려야지만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고 금강산관광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북한으로 하여금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관련해서 재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측면이 이런 북한을 견인해 나가는 데 나름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유철 위원**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이나 정부가 계속 하셨어요. 국제사회에 대고 제재완화를 호소하고 다녔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선 비핵화 조치가 안 되고서는 제재완화는 있을 수 없다라는 답을 보냈습니다. 이제 설득의 방향을 집중적으로 북한으로 해야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하고 북한에게 이제 경제를 선택해라, 그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더 빠른 길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은 이미 실패로 돌아갔고 현실적으로도 매우 어렵다,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가능한 방법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내려놓고 경제를 선택해라 이것을 집중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개성공단도 재가동되고 금강산관광도 재개하는 길입니다, 현실적인 방법.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상당 부분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원유철 위원** 기업인들 현실적으로 가겠습니까? 기업이 가겠습니까? 미국이 제재하고 유엔이 제재하는데 가지도 않을,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을 자꾸만 하지 마시고, 힘 빼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킹그룹에서 하는 일들, 정말 무슨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냥 안 봐도 훤히, 어떻게 진행되고 무슨 결과가 나왔는지.

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원유철 위원** 이도훈 본부장님 오늘 안 오셨는

데 하노이 회담 끝나고 나서 워킹그룹 결과, 성과물 뭐가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강경화** 이번 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성과물에 대해서 제가 언뜻 기억이 안 나는데 허락하시면 해당 국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 장관님 그 정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시기인데?

○**외교부장관 강경화** 전반적으로 남북 또 북·미 하노이 이후의 동향에 대해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 해서 전반적인 현안이 있었습니다. 이산가족 화상 상봉 또 영상편지 교환사업 관련……

○**원유철 위원** 장관님, 됐습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재 면제절차가 완료가 되어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만월대 공동 발굴사업 관련해서 안보리 제재 면제절차를 개시키로 했습니다.

○**원유철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의 핵심점과 관련해서 성과물이 있었느냐 그 답변을 원했던 겁니다. 만월대,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게 아니라. 그것 됐고요. 구체적으로 그건 서면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

조 장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언제까지 계속지 모르지만 계시는 동안에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도 이끄신 성과도 있었고 하셨는데, 후임 장관 내정자 보면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발언이나 여러 가지 저서나 보면 아주 여러 가지 현실 인식이 잘못돼서 대한민국이 잘못하면 또 굉장히 표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 봅니다. 또 시간 낭비가 엄청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조명균 장관님께서 그동안의 국정경험 그것을 후임자에게, 그분이 통과될지 안 될지,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는데 어떤 분이 통일부장관 후임으로 오시든 간에 그동안 쌓으신 노하우, 경험 축적을 잘 전달해서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외교부장관님!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이정현 위원** 지난번에 존 볼턴이 2월 24, 25일 원래 한국에 오기로 돼 있었는데 볼리비아 사태 수습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하노이에 가고 한국을 안 왔거든요. 맞지요, 거기까지는?

○**외교부장관 강경화** 베네수엘라 사태 때문에……

○**이정현 위원** 베네수엘라. 그랬는데 사실은 하노이에 가 계셨어요.

오늘 아침 어느 언론 사설에 의하면, 칼럼에 의하면 그때 미국의 빅딜 정보가 한국을 통해서 북한에 전달될까 싶어서 아마 한국에 오지 않고 이렇게 했다, 사실 동맹국을 상당히 불신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추측입니다.

같은 것으로 한번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억 불 비용 때문에 한미 군사훈련을 포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7000억 불입니다. 1억 불은 0.014%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한미훈련을 통해서 120만을 상대로 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에 대한 훈련과 전략을 짜기도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훈련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장교들을 2년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는데 6월 달이 교체시기였고 이러한 장교들이 한반도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쟁에 대비한 전략전술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한반도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추측할 것입니다. 미군이 한반도에 와서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240대씩을 갖고 와서 훈련하고 이런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중국도 겨냥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런 훈련을 안 한다고 한다면 저는 군인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동안에 줄곧 해 왔었던 0.014%의 국방비에 해당되는 한미훈련을 포기하겠다고 이 시점에서 트럼프가 얘기한 것은 혹시 아까 볼턴이, 말하자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있게 된 빅딜의 정보가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또는 그 밖에 다른 데로 넘어갈 것에 대비해서 안 왔다고 추측한 것처럼 혹시 이러한 무기체계라든가 전략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한 정부를 통해서 북한 그리고 중국에까지 혹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런 해석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의 공조는 여러 계기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 많은 어려운 문제를 협의를 통해서 풀었고 이번 SMA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식의 과잉된 해석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저도 장관님하고 똑같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잉이고 잘못된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서 인용을 하는 이것도 정확하다, 아니다 단정할 수 없듯이 저는 장관님께서도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어쨌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한미 간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와 염려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정말 기분 나쁜 그러한 추측이기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금강산관광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 얘기를, 아까도 여러 위원들의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희망적으로 얘기를 하고 마치 그것이 남북 간에 굉장히 북한의 경제를 크게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북한은 그전에, 말하자면 자금을 마련해 왔었던 행태들을 봐 보면 석탄을 포함한 지하자원과 5만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벌목공을 포함한 인력 수출 그리고 물고기를 포함한 수산업 이런 곳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실은 그 자금원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지금 남북경협 얘기를 하면서 들리기로는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이 문제는 사실상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작 시행하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임금을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정부가 얘기했던 대로 한반도 경제공동체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쓰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부분적이고 실제로 북한에 도움도 크게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더 큰 것을 원하고 있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북한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북한의 이것을 좀 더 낫게 이끌어 가게 하려 한다면 제대로 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남북 간의 분위기에

따라서 매번마다 춤을 추는 이러한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강경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큰 그림, 장기적인 큰 그림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기적인 그림도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어떤 결과도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분명히 대북제재의 틀과 상당 부분 연관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제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할 부분입니다.

○**이정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1분간만 더 쏘시다.

○**위원장 윤상현** 예, 아직 남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예.

○**이정현 위원** 통일부장관님께 우리가 그동안에 죽 얘기한 것을 봐 보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뚜렷한 것처럼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해 왔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과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비쳐졌고 국민들도 정부가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안이하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봤을 때?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굉장히 많은 북한의 핵 실험실과 그다음에 핵물질과 그리고 핵무기와 그리고 미사일발사대와 그리고 북한의 핵 인력들이 정말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협상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거될 수 있는 그런 비핵화가 과연 정말 실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장관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설명하고……

○**통일부장관 조명균** 저는 네 가지로 압축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는 대단히 쉽지 않은 과제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일방적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상응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서 달성될 수 있는 목표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수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수혁 위원** 아까 질의에서 비건 특별대표의 백브리핑 날짜를 3월 21일이라고 한 것은 2월 21일 날을 제가 잘못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북 정상회담 옛새 전의 백브리핑을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들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데 아니다, 실제 정상회담에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했다……

○**외교부장관 강경화** 제가 아까 미처 질의의 뜻을 잘 파악을 못 했는데, 맞습니다. 실제 회담에서도 미 측은 이 세 가지를 논의하기를 원했습니다만 북한의 접근방법은 그게 아니고 영변……

○**이수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그 세 가지는 다 하지 못하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예,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큰 틀에서 로드맵을 만들자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자 하는 그것을 하다가 지금 부딪혀 가지고……

○**외교부장관 강경화** 그렇습니다.

○**이수혁 위원** 북한은 영변 핵시설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재를 자기들은 일부 완화라 하지만, 해제라고 하지만 미국은 사실상 전체 5개를 해제하는 것과 다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 자료에, 외교부가 만들 때 그 결과, 협상을 할 때에 무엇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는가를 좀 써 줘야지 일주일 전의 것을 그대로, 지금 보니까 그 순서도 똑같아요. 그것 아마 담당 직원이 내용을, 핵심을 설명해 주려고 한 것보다 일주일 전의 디브리핑 원고를 보고 지금 이것 작성한 것 아닌가 해서 조금 부실했다 하는 것 지적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고.

제재의 틀 안에서 핵 문제, 남북경협을 하라 하는 말은 저는 좀 공허하게 들리거든요. 제재의 틀 안에서 지금 남북경협은 사실상 논의에 실질적인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의미 없는 공허한 얘기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대단한 것처럼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추궁적인, ‘제재의 틀 안에서 그러면 뭘 하라는 거냐, 무엇을 우리 한국정부가 할 수 있다는 거냐’ 하고 추궁하는 자세로 대응하면 미국도 답이 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예 그럴 바에야 이 얘기 하지 말아라, 남북경협에 반대하지 않는다 하면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좀 지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송영길 위원님의 정제유 얘기인데, 저도 사실 지금 통계를 요구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조 장관님이 알고 계신 정보에 북한이 제재 전에는 정제유를 얼마나 수입했습니까? 지금 연 50만 배럴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의 1800분의 1이에요, 계산해 보니. 그런데 우리 경제 규모의 2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이것 90배를 더 줄여 놔 버린 거거든요. 100분의 1밖에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량의.

그런데 실제 정제유 수입은 얼마나 했었습니까, 이 제재에 이르기 전에는? 우리가 그 통계가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 통계가……

○**이수혁 위원** 아니, 안보리가 연 50만 배럴로 할 때는 무슨 수치가 있어 가지고 그것의 몇 분의 1을 주자, 수입을 그것만 허용하자 했을 텐데 그 수치가 얼마였습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매년 조금씩 변동이 제법 큼니다.

○**이수혁 위원** 대개……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정제유 같은 경우는 50만 배럴이고 환산하게 되면 6만 톤 약간 넘는 금액인데……

○**이수혁 위원** 아니, 수입이 그런데 실제 제재 전에 북한이 수입한……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그것이고 제재 전에는 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50만 톤 이상 정도 북한이……

○**이수혁 위원** 톤하고 배럴하고 어떤 관계에 있나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0만 배럴은 정제유 같은 경우는 원유하고 환산하는 게 약간 단위가 다른데 약 6만 5000t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북한이 제재 전에는 50만 톤 이상을 한 것이 대략적인 저희의 추산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변동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니까 오일 수입 제한이 엄청난 압박이 되겠군요? 무슨 10분의 1로 줄여 놓은 게 아니라 상당히 엄청난 제재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우리하고 비교해서 이

게 어느 정도 양이 적다, 많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보다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제재의 수준이 북한한테 상당히 치명적인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이수혁 위원 북한이 제재의 완화를 제일 먼저 요구할 것은 이 오일 문제 아닐까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글썬요, 그것까지 추정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 뒤에 2397호의 마지막 제재에 원유 부분이 상당히 제한된 규모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혁 위원 저도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윤상현 예.

○이수혁 위원 최선희 부상이 ‘한국이 플레이어다’, 저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플레이어인데 무슨 놈의 중재자냐, 남한·북한·미국 3자회담을 하자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한국이 무슨 중재자야, 플레이하면서 미국하고 짝자쿵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런 얘기입니까? 이것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문도 저는 방향이 어떤 방향에서 질문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통일부장관 조명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북측의 의도를 좀 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이수혁 위원 한국이 참여해서 남·북한, 미국 3자 협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요?

○통일부장관 조명균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혁 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를 잘……

○통일부장관 조명균 일단 우리 정부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는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좀 더 북측의 입장을 우리 한국이 고려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일단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수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가 다 끝났는데 혹시 추가질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한미 방위비분담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대체토론과 외교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등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들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님, 송영길 위원님, 추미애 위원님, 천정배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님, 조명균 통일부장관님,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님 그리고 이미경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님,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 최연호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님, 고경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님 그리고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님, 오늘 회의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수고해 주신 관계부처 직원 여러분, 취재에 수고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위원회 직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출석 위원(19인)

김 무 성	김 재 경	박 병 석	박 주 선
송 영 길	심 재 권	원 유 철	원 혜 영
유 기 준	윤 상 현	이 석 현	이 수 혁
이 인 영	이 정 현	정 병 국	정 양 석
정 진 석	천 정 배	추 미 애	

○청가 위원(1인)

이 해 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기원	개성공단남북공동 위원회사무처장	서두현
전문위원	유상조	상조	북한인권기록센터장	이금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립외교원	
외교부			원장	조세영
장관	강경화	경화	교수부장	서상표
제1차관	조태호	태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제2차관	이태원	태원	사무처장	황인성
한미방위비분담 협상TF정부대표	김인철	인철	기획조정관	김안나
대변인	김유대	유대	위원활동지원국장	전난경
기획조정실장	유재상	재상	한국국제협력단	
의전장	이진상	진상	이사장	이미경
재외동포영사실장	김건완	건완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송진호
국제안보대사	김영필	영필	이프라·중동·중남 미본부이사	백숙희
조정기획관	김병수	병수	글로벌파트너십본부	송웅엽
인사기획관	강형식	형식	한국국제교류재단	
의전기획관	우인식	인식	이사장	이시형
해외안전관리기획관	김용길	용길	기획협력이사	강영필
재외동포영사기획관	구홍석	홍석	교류협력이사	김성인
동북아시아국장	김태진	태진	재외동포재단	
남아시아태평양국장	정기홍	기홍	이사장	한우성
북미국장	임상범	상범	기획이사	오영훈
유럽국장	권기환	기환	사업이사	기춘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	오현주	현주	한·아프리카재단	
국제기구국장	유기준	기준	이사장	최연호
개발협력국장	김영재	영재	상임이사	김기연
국제법률국장	김희상	희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국제경제국장	권세동	세동	이사장	고경빈
양자경제외교국장			사무총장	한기수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평화외교기획단장			회장	이승환
통일부			교류협력지원실장	김용규
장관	조명준	명준		
차관	이해덕	해덕		
기획조정실장	김남승	남승		
통일정책실장	이주태	주태		
정세분석국장	김병준	병준		
교류협력국장	최영도	영도		
인도협력국장	김준기	준기		
남북협력지구 발전기획단장	임병철	병철		
남북회담본부장	이강우	강우		
통일교육원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장				
남북출입사무소장				

【보고사항】

○의안 회부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

(2018. 11. 9. 김정우·김병기·박광운·김철민·송영길·원혜영·서형수·백혜련·박찬대·추미애·윤관석·민병두 의원 발의)

11월 12일 회부됨

일제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에 따른 일본 정부 및 전범 기업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2018. 11. 12. 김광수·김경진·천정배·윤소하·
심상정·추혜선·김현권·장정숙·송영길·
오영훈·유성엽·김종희·채이배·조배숙·
박지원·이용주·김종훈·정동영·최도자·
조승래·김경협·위성곤·백재현·이훈·
김정호·조경태·최경환(평)·서영교 의원 발의)
11월 13일 회부됨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2018. 11. 13. 정부 제출)
11월 14일 회부됨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2018. 11. 14. 심상정·김종훈·윤소하·김종대·
채이배·원혜영·서영교·추혜선·정동영·
이찬열·유승희·이정미·이철희·표창원 의원
발의)
11월 15일 회부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
발의)**

(2018. 11. 23. 조원진·김진태·심재철·박대출·
함진규·김규환·김재원·박덕흠·김태흠·
송석준 의원 발의)
11월 26일 회부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8. 11. 30. 이석현·윤일규·정세균·유승희·
안호영·김철민·김병기·변재일·송기현·
박광운·조승래·이재정 의원 발의)
12월 3일 회부됨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대표발의)**

(2018. 12. 4. 천정배·장정숙·전혜숙·김광수·
장병완·박지원·윤소하·윤영일·조배숙·
김종희 의원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

(2018. 12. 4. 이동섭·송갑석·신동근·임재훈·
유동수·신용현·안민석·안규백·정인화·
이상헌·황주홍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5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2018. 12. 5. 노웅래·전현희·안규백·임종성·
정세균·이후삼·박정·심기준·윤후덕·
송기현·김영호·홍문표·안민석·변재일 의원

발의)
12월 6일 회부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
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박주현 의원 발의)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
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박주현 의원 발의)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
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박주현 의원 발의)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
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박주현 의원 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황주홍·최도자·이찬열·장정숙·
정동영·이언주·이용주·이종걸·정인화·
박주현 의원 발의)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최경환(평)·김광수·박지원·손금주·
안민석·유성엽·윤영일·장병완·정인화·
조배숙 의원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평)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0. 최경환(평)·김광수·박지원·손금주·
안민석·유성엽·윤영일·장병완·조배숙·
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7건 12월 11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8. 12. 13. 정부 제출)
12월 14일 회부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0. 유승희·김동철·송영길·송옥주·
심재권·이종걸·이찬열·주승용·추미애·

한정애 의원 발의)

12월 21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발의)

(2018. 12. 21. 김재경·정갑윤·김성원·권성동·
강석호·김성찬·박대출·김석기·조훈현·
김현아 의원 발의)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21. 김재경·정갑윤·김성원·권성동·
강석호·김성찬·박대출·김석기·조훈현·
김현아 의원 발의)

이상 2건 12월 24일 회부됨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키르기스공화국 간의 형사 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키르기스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
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키르기스공화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6건 2018. 12. 28. 정부 제출)

이상 6건 12월 31일 회부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8. 12. 31. 김도읍·이진복·김재원·한선교·
박덕흠·김현아·장석춘·김정재·이은재·
홍철호 의원 발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2018. 12. 31. 김도읍·이진복·김재원·한선교·
박덕흠·김현아·장석춘·김정재·이은재·
홍철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9년 1월 2일 회부됨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2019. 1. 11. 강석호·김재경·김무성·정양석·
이정현·원유철·정진석·추경호·정유섭·
정갑윤·이학재·이종배 의원 발의)

1월 14일 회부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9. 1. 25. 이석현·김철민·윤준호·안민석·
원혜영·윤일규·김혜영·이인영·안호영·
심재권·유승희 의원 발의)

1월 28일 회부됨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31. 이언주·유승민·정병국·정운천·
이동섭·김삼화·김중로·김진태·김영우·
임재훈 의원 발의)

2월 1일 회부됨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무효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30. 이언주·윤상직·박대출·강효상·
송언석·정운천·정유섭·곽대훈·김중로·
김영우 의원 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9. 2. 1. 심재권·백재현·유승희·이훈·
신창현·원혜영·박찬대·최재성·맹성규·
소병훈·이철희·송옥주·노웅래 의원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2019. 2. 1. 심재권·황희·백재현·유승희·
이훈·신창현·박찬대·김상희·최재성·
맹성규·소병훈·이철희·송옥주·노웅래 의원
발의)

이상 3건 2월 7일 회부됨

**중미경제통합은행 설립협정에 대한 대한민국의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2019. 2. 8. 정부 제출)

2월 11일 회부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

(2019. 2. 11. 김병기·신창현·최재성·표창원·
김영진·신동근·박주민·이상현·이원욱·
김병욱·김영호 의원 발의)

2월 12일 회부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
발의)

(2019. 2. 12. 정병국·김세연·김재경·송희경·
원유철·유민봉·유승민·이명수·이채익·
이학재·조훈현 의원 발의)

2월 13일 회부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 발의)

(2019. 2. 25. 강석진·강석호·강효상·경대수·곽대훈·곽상도·권성동·김광림·김규환·김기선·김도읍·김명연·김무성·김상훈·김석기·김선동·김성원·김성찬·김성태·金成泰·김세연·김순례·김승희·김영우·김용태·김재경·김재원·김정재·김정훈·김종석·김진태·김태흠·김학용·김한표·김현아·나경원·문진국·민경욱·박대출·박덕흠·박맹우·박명재·박성중·박순자·박완수·박인숙·백승주·성일중·송석준·송언석·송희경·신보라·신상진·심재철·안상수·엄용수·여상규·염동열·원유철·유기준·유민봉·유재중·윤상직·윤상현·윤영석·윤재옥·윤종필·윤한홍·이만희·이명수·이양수·이완영·이우현·이은권·이은재·이장우·이종구·이종명·이종배·이주영·이진복·이채익·이철규·이학재·이현승·이현재·임이자·장석춘·장제원·전희경·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우택·정유섭·정중섭·정진석·정태옥·조경태·조훈현·주광덕·주호영·최경환(한)·최교일·최연혜·추경호·한선교·함진규·홍문중·홍문표·홍일표·홍철호·황영철 의원 발의)

2월 26일 회부됨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2. 27. 김동철·이동섭·김종훈·한정애·임재훈·김삼화·원혜영·이종걸·박주선·이찬열·최도자·정양석·장병완 의원 발의)

2월 28일 회부됨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2019. 3. 12. 정부 제출)

3월 13일 회부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9. 3. 13. 김학용·김성원·김무성·민경욱·정태옥·김종석·홍문표·정유섭·송언석·주호영·이장우·김정재·김순례·임이자·박성중 의원 발의)

3월 1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1. 조배숙·김종회·박주현·박지원·장병완·장정숙·정동영·정인화·천정배·최경환(평)·황주홍 의원 발의)

12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심기준 의원 대표발의)

(2018. 12. 13. 심기준·송기현·우상호·신창현·김정우·박재호·노웅래·민병두·최재성·윤후덕·맹성규·박정·김병관·김철민·김한정·박광운·박완주·임종성·황희 의원 발의)

12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한민국 해군 함정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반복적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사고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

(2019. 1. 28. 안규백·전현희·최인호·정인화·이상헌·이후삼·김성찬·유승희·천정배·민홍철·김해영·송기현·송갑석·윤관석·정세균·김병기·이춘석·김병관·이원욱·최재성·김경협·조승래·하태경·김민기·기동민·임종성·소병훈·박찬대·박경미·홍영표·이찬열·노웅래·추미애·서영교 의원 발의)

1월 2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9. 2. 27. 김동철·이동섭·김종훈·한정애·임재훈·김삼화·원혜영·이종걸·박주선·이찬열·최도자·정양석·장병완 의원 발의)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컬렉션 반환 촉구 결의안

(2019. 2. 27. 김해영·이상헌·오제세·소병훈·이철희·김경진·김삼화·안규백·송옥주·송갑석·황희·김병관·윤관석·김종민·백혜련·윤상현·유승희·임종성·백재현·홍의락·김부겸·이완영·고용진·서삼석·권칠승·유의동·박홍근·김성원·이수혁·김동철·최운열·장정숙·김상훈·이명수·김철민·심기준·유성엽·이학영·원혜영·

김민기·정인화 의원 발의)

이상 2건 2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
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
부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3. 13. 김영호·김병기·최재성·윤후덕·
김현권·신창현·윤준호·박홍근·우원식·
서영교 의원 발의)

3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청원 회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2018. 12. 14. 경실련 통일협회 대표 최완규로부터
천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월 14일 회부됨